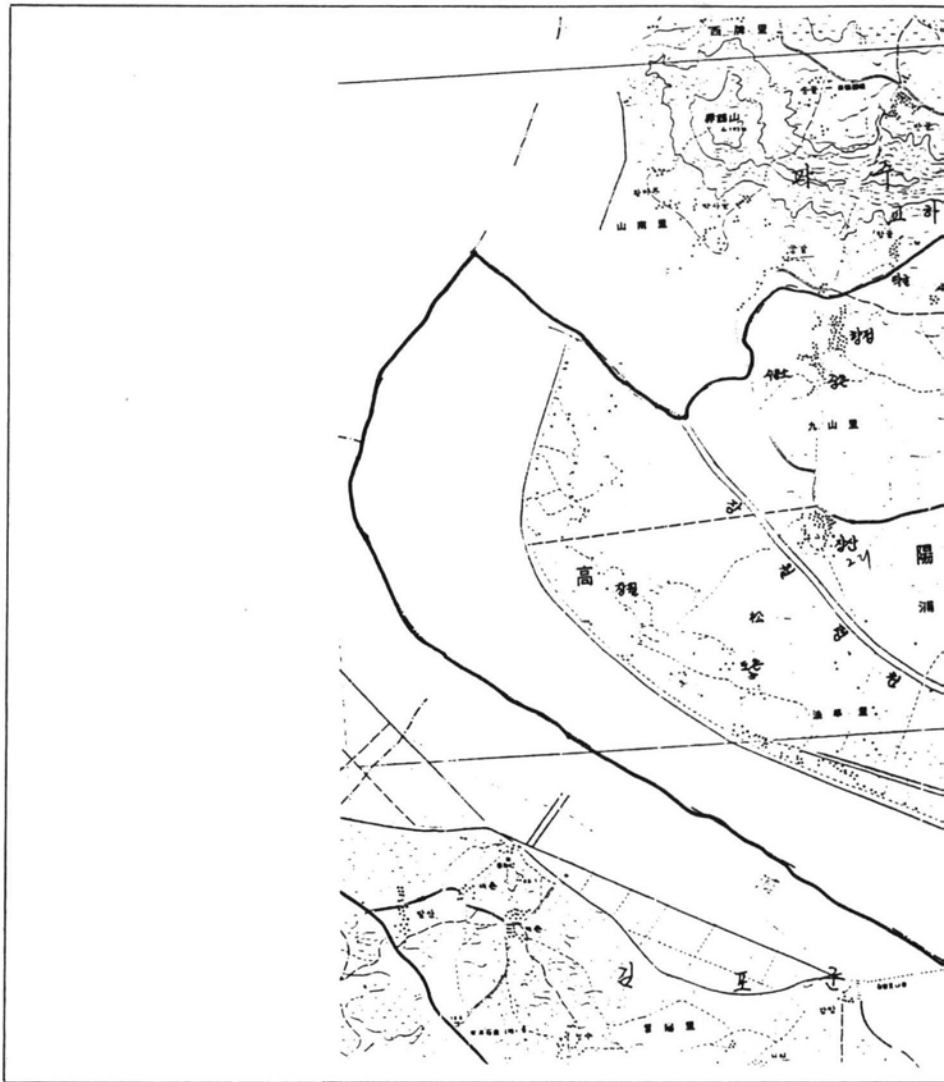
7. 송포면(松浦面)




교하면
송촌
선촌
松 洞 面
부
일
산
주엽리
이상포

송포면은 고양 군청이 있는 원당[주교리]에서 서북쪽으로 이어진 310번 지방도로를 따라 약 4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인데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남아있다.

송포면의 위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송포면의 동쪽으로는 일산읍과 경계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김포군 김포읍과 남쪽으로는 일산읍과 북쪽으로는 파주군 교하면과 경계하고 있다. 송포면은 고양군의 제일 서북쪽에 위치해 옛 농촌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대부분 논농사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한강의 제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갯벌이거나 물이 자주 드나들던 논이였는데 한강제방이 완성되고 경지정리를 한 뒤에는 모두 황금벌판으로 변하였다.

현재 송포면은 덕이리·구산리·가좌리·법곶리·대화리 모두 5개의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송포면은 송산면(松山面)과 사포면(巳浦面)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송산면이라는 명칭은 이곳에 소나무가 많고 무성했던 데서 연유했다고 하며, 사포면이라는 명칭은 뱀개를 한(漢)역한 것인데 이곳이 뱀개로 불리는 까닭은 한강연안에 제방이 쌓이기 전, 이곳은 한강물이 들어왔다가 돌아나가는 곳으로서 특히 홍수 때나 장마철이 되면 저멀리 강원도에서 뱀이 떼지어 한강물을 타고 이곳으로 떠밀려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하며 또 달리 이곳에 있는 산들이 모두 밋밋하여 주봉(主峯)이 없이 마치 뱀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기어다니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조선 영조 때의 『고양군지』를 보면 송산면의 경계가 "初境西距德耳里三十里終境龜山里五十里江水接界通津境"이었다 하니, 처음 경계에서 서쪽으로 덕이리까지가 30리, 마지막 경계는 구산리에서 50리의 강으로 김포통진과 경계 하였다.

송산면(松山面)에는 덕이동리(德耳洞里)[탄현촌(炭峴村), 한산촌(寒山村), 도리곡(道里谷), 갈안산(갈安山)]에 152호, 가좌동리(加佐洞里)[당맹도(唐盲導), 우음칠곡(右音漆谷), 중산리(中山里), 야미촌(夜味村)]에 79호, 구산촌리(龜山村里)[구산촌(龜山村), 장산촌(獐山村)]에 59호 등 모두 3개리에 290호가 있었다 하며 남자가 630명, 여자가 609명 살았다고 한다.

사포면의 경계는 "初境西距城底里三十五里終境法串里四十五里江水接界金浦景"이었다 하니 처음 경계에서 성저리까지는 30리, 마지막 경계는 법곶리에서 45리 떨어져서 강수를 경계로 김포와 맞닿고 있었다.

사포면(巳抱面)에는 성저리(城底里)[장리촌(裝里村), 신촌(新村)]에 66호, 대화리(大化里)[강서동(江西洞), 포변리(浦邊里), 도촌〔島村〕에 94호, 이산리(二山利)[동서촌(東西村)]에 90호 등 모두 3개리에 250호가 있었다

하며 남자가 498명, 여자가 455명 살았다고 한다.

1910년[강희 4년] 8월 23일에 경기도고시 제6호로 이동을 합병개칭한 바 있었다. 이 때 송산면에서 추산리가 덕이동(德耳洞)에 합해졌고 성저리가 대화리에 합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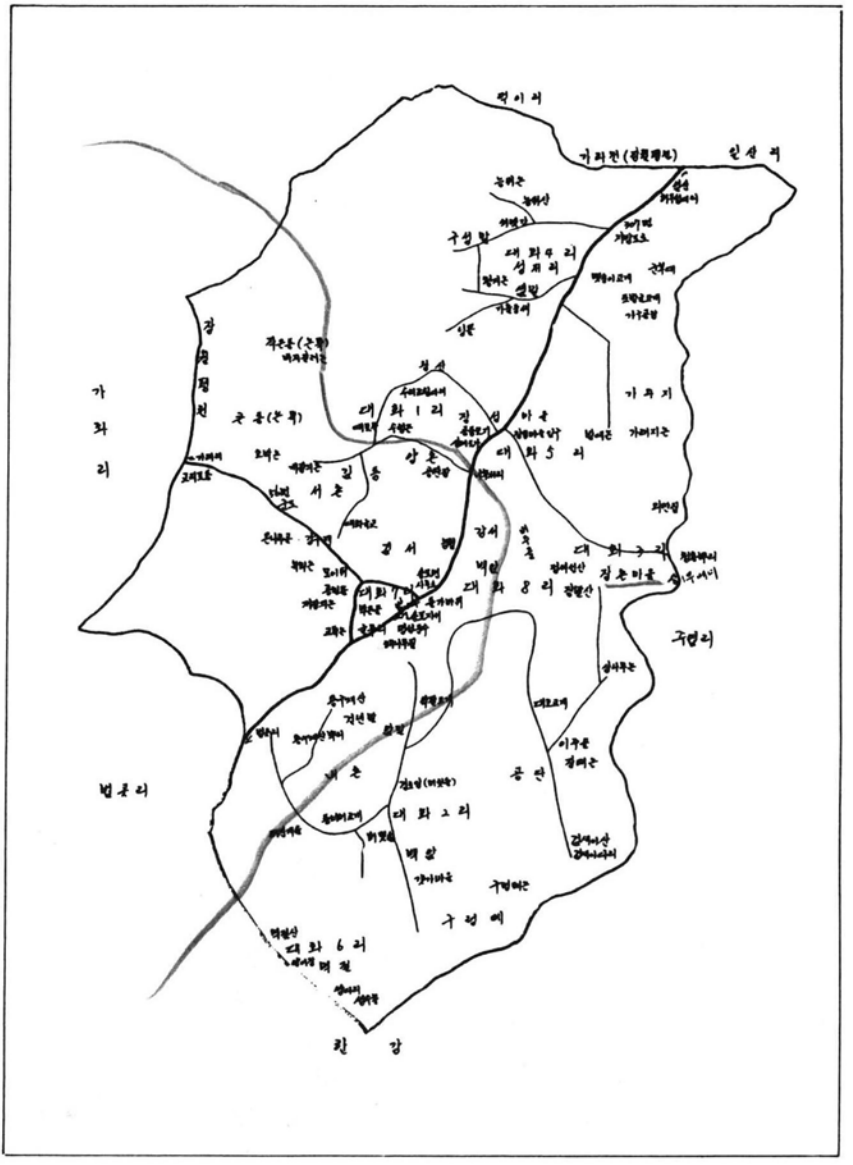
1912년 들어 고양군은 9면 59개 동리의 행정구역을 관할하게 된다. 이 때 송산면은 덕이리, 가좌동, 구산리를 관할하고 사포면은 대화리, 법곶리를 관할했다. 1914년 2회에 걸친 고양군 관할구역의 확대가 있었는데 비로소 송포면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게 된다. 송포면은 이전의 송산면과 사포면 일대를 포괄하는 지역으로서 구산리, 가좌리, 덕이리, 대화리, 법곶리를 관할했고 그 명칭 또한 송산면의 '松'자와 사포면의 '浦'자를 합성한 것이다.

송포면은 1985년에 신도읍내의 출장소와 지도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고양군 내의 유일한 면으로써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대화리(大化里)



대화리의 지명유래가 된 뱀개마을


가 회 리
대 화 1 리
대 화 5 리
대 화 6 리
대 화 8 리
서 촌
상 촌
길 동
구 읍(군 부)
기 곡 리
구 정 에
공 단
대 화 그 리
범 골 리
임 이 리
인 성 리
한 강

송포면 대화리는 고양군청이 있는 원당[주교리]을 기준으로 볼 때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살펴보면 고양 군청에서 일산 방면으로 이어진 310번 지방도로로 일산까지 와서 다시 송포면 면사무소가 있는 방향으로 307번 지방도로를 따라 약 3km 오면 있는 마을이다. 대화리의 동쪽으로는 일산읍 주엽리·일산리와 경계하고, 서쪽으로는 법곶리·가좌리와 남쪽으로는 김포군과 북으로는 덕이리·탄현리와 경계하고 있다.

대화리는 예전부터 주변의 넓은 벌판과 이 벌판 사이에 있는 야산에 촌락을 만들어 살아 전통적인 한국 농촌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약 10여년전부터 공단이 부분적으로 조성되어 일부 지역은 그 모습이 변화되었다. 현재 대화리는 모두 8개의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다.

朝鮮 中宗때의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 東國輿地勝覽』에는 사포(蛇浦)라고 표기되어 있다, 물론 蛇나 巳나 뱀을 뜻하기는 마찬가지이나 엄밀히 말하면 巳는 십이간지(十二干支) 중 여섯번째 干支로서 그것을 띠로 칠 때 뱀이 되는 것이다.

대화리는 예전엔 사포면(巳浦面)이었는데 이 사포(巳浦) 는 '뱀개'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으로 이 곳이 뱀개로 불리워진 데에는 두 가지의 유래담(由來譚)이 있다.

첫째는 한강연안(漢江沿岸)에 제방이 쌓여지기 전에는 이 곳으로 한강물이 들어 왔다가 돌아 나갔는데, 특히 홍수때나 장마철이 되면 저 멀리 강원도(江原道)에서부터 뱀이 떼를 지어 한강물을 타고 이곳으로 떠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곳을 뱀개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야기는, 이곳에 있는 산(山)들은 모두 밋밋하여 주봉(主峯)이 없기 때문에 마치 뱀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기어다니는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뱀개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호에 부·군·면 폐합 당시 김동(金東), 장촌(長村), 김서(金西), 백암(百岩), 강서(江西), 양촌(楊村), 성저리(城低里) 등 여러 개의 자연 촌락을 합쳐 크게 된 법정리라 하여 대화리로 칭했다 한다.

1) 대화 1리(大化 1里)

대화 1리는 송포 삼거리에서 307번 지방도로를 따라 약 3km 쯤 들어가면 송포면 면사무소가 나오는데 면사무소 뒷산〔도당산〕주변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벌판 앞쪽으로는 덕이 5리[덕위]가 위치해 있고 뒷쪽으로는

대화 7리와 307번 도로을 경계로 면사무소 건너에 대화 8리가 위치해 있다. 현재 대화 1리 마을은 대부분 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주 생계수단이다.

예전엔 김동(金東), 양촌(楊村), 김서(金西)가 대화 1리(大化 1里)였는데 5.16혁명 이후 金東과 楊村를 대화 1리로, 金西를 대화 7리로 행정구역을 개편 하였다고 한다. 옛부터 대화 1리에는 금녕 김씨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 왔는데 이들이 이곳에 처음 정착한 것은 1500년의 일이라 한다.[1)]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61가구 26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양촌(陽村)

양촌은 대화 1리의 대표적인 자연촌락 이름으로 307번 도로에서 가좌리 방향에 있는 마을이다. 양촌(楊村)은 楊氏들이 모여 사는 集姓村이라 하여 양촌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달리 '볕양(陽)'자로 표기하여 양지바른 곳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불리워진 지명이라고도 한다.

⊙ 김동(金東)

김동은 양촌마을에서 56번 도로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 명칭으로 예전에 이 지역을 김동(金東)과 김서(金西)로 일컬었는데 金氏들의 씨족촌(氏族村)으로서 東쪽에 있는 金氏 마을을 金東이라 하고, 西쪽에 있는 金氏의 마을을 金西라 하며 두 마을을 합쳐 김동(金洞)이라고 한다.

그리고 5.16 이후 金西 마을이 대화 7리로 金東 마을이 대화 1리로 행정리 구역을 개편하였다고 한다.

⊙ 왕산(王山)

왕산은 大化里에서 제일 큰 야산의 이름이다. 산의 형세가 능처럼 생겼다하여 불리워진 것으로 金寧 金氏의 묘소가 이 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또 달리 이 산은 일제식민지시대 이후에 산의 형세가 또렷하여 왕산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울창한 숲이어서 형세를 알 수 없

1) 고양군지편찬위원회, 〈고양군지〉, 《사단법인 고양문화원》, 1989. p.882.

었고, 이 부근 마을을 새로 생긴 마을이라 새마을이라 하였다 한다. 또 달리 일부 사람들은 산 중앙에 있는 묘소가 마치 왕능처럼 크다고 하여 이 능이 있는 산을 왕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 황새머리

황새머리는 앞에서 소개한 왕산에 있는 소지명으로 왕산(王山)에 큰 소나무가 많았는데 이곳에 황새가 많이 있다 하여 황새머리라 불렀다고 한다.

● 대보뚝

양촌마을에서 가좌리 방향에 있는 논뚝의 이름으로 큰 뚝이라는 뜻에서 대보뚝이라 부른다.

⊙ 도당산

지금의 김동[金東, 대화 1리]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산의 이름인데 대화리의 민간 신앙인 도당굿을 드리는 곳이다. 치성을 드릴 때는, 그 해 추수 농사물인 쌀, 팥, 녹두, 콩, 찹쌀 등으로 시루떡을 하여 연세 높은 성주가 무당을 모시고 2-3일씩 굿을 거행한다. 그리고 그 떡은 각 집마다 똑같이 분배하여 동네가 무사하길 기원했다고 한다.

도당굿은 음력 10월 15일에 거행하였으며, 동네가 깨끗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또는 풍·흉년에 관계 없이 주기적으로 거행하였다고 한다.

● 수렁논

양촌마을에서 왕산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부터 수렁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수리조합다리

양촌마을에서 왕산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다리의 이름으로 예전에는 없다가 수리조합에서 경지 정리 후 새로 만든 다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고리포동

고리포동은 가좌리와의 경계인 장월평천 부근에 있는 지명인데 송포 골짜기와 고봉산[태미산] 골짜기 물이 모두 이리로 통과하였는데 이 물을 동뚝으로 막아 골포로 만들어 물수세를 받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이 저수지에도 동주가 있어서 5마지기당 5말, 10마지기당 10말의 물수세의 고리를 받았다고 한다. 1971년 농지 정리 후 지금 그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나 지금의 그 장소를 옛적 명칭대로 부르고 있다. 그 위쪽에 큰 동, 작은 동이 있었는데 고리포동과 같은 큰 저수지 역할을 했다고 한다.

● 호박논

고리포동에서 양촌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호박 한 덩어리와 바꾸어 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논 이름이다.

● 개장의 논

호박논에서 김동방향 바로 옆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논을 개와 바꾸었다 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개장의 논은 지금도 논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 바지갈레논

바지갈레논은 논의 형상이 마치 바지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 작은동 저수지 옆에 있던 논의 이름이다.

제보자 : 김경규(61), 김규섭(85), 김학성(80), 김홍규(80), 오중섭(66)

2) 대화 2리(大化 2里)

대화 2리는 송포면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한강뚝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307번 지방도로를 경계로 송포지서와 명성버스 정류장이 있는 마을과 그 밑의 마을이다. 대화 8리에서 한강제방 방향으로 멱절마을과, 앞쪽으로는 주엽벌과 경계하고 있는 이 마을도

대부분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촌지역이다.

대화 2리는 내촌(內村)과 백암(白岩)촌락을 합하여 부르는 지명인데 예전에는 백암, 내촌, 강서 마을을 대화 2리로 칭하였으나 인구가 점차로 증가함에 따라 1982년 6월 1일 행정리 구역 개편 때 강서(江西)촌락이 대화 8리로 분리되었다고 한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72가구 23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내촌(內村)

내촌마을은 307번 도로에서 주엽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으로 『고양군지』의 기록에 의하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그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내촌이라 한다 했고, 또한 주민의 이야기로는 마을 앞에 큰 내가 흘러 '川'자로 표기하되 '내'라는 훈을 남겨두고 '천'은 마을을 의미하는 村으로 바꿔 불렀다 한다. 현재 34가구가 살고 있다.

⊙ 백암(白岩)

백암은 앞에서 소개한 내촌에서 주엽리 하주마을 방향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변(河川邊)에 흰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한강변에 제방을 쌓기 전에는 이 하천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 이 곳은 섬이었다고 한다.

이 백암이라는 촌락명은 일제식민지시대 이후에 부르던 명칭이며 그 전에는 개울가에 있다 하여 갯가마을이라고 불렀다 한다. 그 개울 앞으로 배가 다닌 점으로 보아 상당히 큰 개울인 듯 싶다. 지금도 마을이름은 '갯가마을'과 '백암'의 자연 촌락 명칭을 병용하여 부르고 있다.

● 해나무집

명성운수 밑에 있는 집의 이름으로 예전에 큰 해나무가 있었는데 이 해나무는 죽고, 그 자리에 또 해나무가 자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도 이곳에 큰 해나무가 있는데 모양은 용모양이며 뿌리는 50m 정도이고 뿌리가 칡뿌리처럼 연하다고 한다.

⊙ 동너머고개

내촌에서 대화 6리 멱절마을 방향에 있는 고개의 지명으로 한강 제

방뚝이 생기기 전엔 한강물이 이 앞의 갯가마을까지 들어와 배가 드나드는 모습과 한강을 볼 수 있어 동너머고개라 불렀다 한다.

또한 한강 제방뚝이 만들어진 이후 큰 동을 막아 농사철에 용두래로 물을 퍼 쓸 수 있는 동이라 하여 불리어 졌다고도 한다.

⊙ 악팔고개[앞펄고개]

내촌마을에서 대화 8리 방향에 있는 고개의 지명으로 예전에 이 고개를 넘으면 앞 벌판이 훤히 다 보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버덧섬

동너머고개에서 백암마을로 가는 도중에 있는 지명으로 갯가마을 산 뿌리를 부르는 명칭이다. 예전에 한강물이 들어왔을 때 육지에서 뻗어 나가는 섬인 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산의 뻗어 나가는 형세가 마치 버섯과 같이 생겨 육지와 이어진 것을 발견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 용구재

대화 2리 내촌(內村)과 백암(白岩)마을 산등성이의 끝 야산인 용구재산은 그 산의 형세가 용이 되려다 그만 둔 형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대화 2리의 김명규씨와 대화 1리 김홍규씨의 말에 의하면 315년 전 영의정 '오대감'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이 되어 임금이 사약을 내리심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고 한다. 그 후 오대감의 아들은 아버지의 묘 자리를 지금의 명성 버스 정류장인 명당 자리에 잡고서 멀리 강원도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망부석과 비석을 서둘러 세워라"하기에 망부석과 비석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비석을 세우기 전에 한양의 도성에 서기(瑞氣)가 뻗쳐, 임금은 신하를 시켜 그 서기를 쫓았다. 그 결과 서기가 오대감의 묘에서 나왔음을 알게 되었다. 서기가 뻗치면 그 집안 사람이 왕권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어, 왕은 그 묘를 파헤치라고 명하였다. 아들은 망부석과 비석을 가지고 동너머고개를 넘어 갔으나 이미 임금의 신하들이 무덤

을 파헤쳐서 용이 되어 승천하려는 오대감을 큰 칼로 찍어 그것을 막았다. 그 후 그의 후손들은 다시 번창하지 못했다 한다.

또한 송포면에서 창간된 《우리 고장 안내》를 살펴보면,

옛날에 강화(江華)에 살던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묘를 쓰려고 삼각산(三角山) 줄기를 타고 내려온 곳을 찾았다. 그러나 마땅한 자리가 없어 지금의 대화리(大化里) 뒷산 이 곳 용구재에 묘자리를 썼는데 그 이후로 집안이 망했다 한다.

⊙ 앞말

내촌에서 악팔고개 방향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건넌말에서 볼때 그 위치가 마을 앞쪽에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 용구재 뿌리

용구재 산에서 법곳리 방향에 있는 지명으로 용구재산이 벌판을 만나 끝나는 곳을 부르는 명칭이다.

⊙ 건넌말

용구재산 밑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앞말에서 볼 때 논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터진개울

동너머고개에서 법곳리 방향에 있는 지명으로 예전부터 논뚝이 잘 무너져 붙여진 지명이다.

⊙ 구렁테

구렁테는 백암마을에서 주엽리 하주마을 방향에 있는 지명으로 백암마을의 앞 땅이 비가 오거나 하면 질어져 푹푹 빠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제보자 : 김명규(82), 김석규(75), 김홍규(80), 김장섭, 김길북(86)

3) 대화 3리(大化 3里)

대화 3리는 송포면 삼거리에서 송포면사무소 방향으로 약 2㎞에 위치한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그 주변지역의 앞쪽으로 주엽벌이 있고 장성마을과 긴 길을 따라 대화 8리와 경계하고 있다.

대화 3리는 다른 송포면의 마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1989년 통계로 90가구 343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장촌(長村)

장촌마을은 대화 4리 장성마을에서 주엽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이다. 『고양군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마을이 강변(江邊)의 개펄쪽으로 길게 뻗어있기 때문에 '길 장(長)'자를 써서 장촌(長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마을에 정(鄭)씨가 시초로 들어와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살았다 하여 정마을이라 불리우다 정촌(鄭村)으로 되었으며 그 후 장촌(長村)으로 바뀌었다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옛날 삽다리에 큰 부자가 살고 정씨라는 사람이 언장골짜기[지금의 덕이 5리]에 살면서 부자 일을 도와주었는데, 그 때 마다 주인 집에서 밥을[새참] 내왔다고 한다. 밥을 내온 아낙네가 너무 예뻐서 서로 색있는 말로서 오가는 가운데 눈이 마주쳐 같이 동침을 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안 부자가 삽다리로 부터 멀리 가서 살면 용서해 주겠다고 관용을 베풀었는데 멀리 가서 산다고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앞 마을이었고 한다. 주인이 동네 망신이라 생각하여 10명의 종을 시켜 쫓아 버리려 하였는데 정씨가 워낙 힘이 세고 기세가 왕성하여 어느 누구도 덤벼들 자가 없어서 주인이 그만 포기하고, 정씨는 그 곳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한다. 그 후 정(鄭)씨가 사는 마을이라 하여 '장말'이라고 불리웠다고 한다.

또 달리 이 곳에 정기적으로 장(場)이 서서 장말이라고 불리워졌다고 한다

● 향나무베미논

예전에는 이 논이 큰 저수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 논 옆에 큰 향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지금 향나무배미논은 일산읍 주엽리와 송포면 장말과의 경계가 되고 있다. 그 향나무는 몇해 전에 사라지고, 향나무가 있었던 자리에

는 장촌[대화 4리]의 마을회관이 있다.

⊙ 검새이산

장촌(長村)마을의 산줄기 끝 뿌리로 백암(白岩)마을에 제방뚝이 생기기 이전 강가의 물이 철렁철렁 할 때 그 산이 강물에 검푸르게 비춰져 검새이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 있다.

⊙ 청룡뿌리

향나무베미 윗쪽에 있는 지명으로 마을이 길기 때문에 시작과 끝의 형세가 용이 묻혀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 청룡뿌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장태논

이곳에서는 예전에 장(場)이 정기적으로 섰다고 한다. 그러나 농지정리 이후 논으로 만들어 지면서 논은 없어졌으나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달밭

샛강을 메운 다음 나중에 생긴 지명으로서, 돌방구지와 옆방구지 바깥쪽 산염벌로 나아가면 달밭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 달밭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옛날 한 지관이 삼각산의 뿌리와 이어진 이미산의 명당 자리를 좇아 내려오다, 명당이 돌방구지에 묻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황금빛 달걀이 삼각산 뿌리가 묻혀 있으므로 금빛의 기(氣)가 아른거릴 것이라 생각하고 이산포로 내려와 이미산을 보니 산의 기가 뭉치곤 했는데 강으로 인해 끊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장문산에 묘자리를 잡았다 한다.

⊙ 돌방구지

돌방구지는 옆방구지와 돌방구지를 돌아서 배주골로 나가는 곳의 지명인데 이곳 부터는 배로 강서, 나룻터와 버덧섬을 거쳐 법곳리 이산포로 갔다고 한다. 옛날에 이 돌방구지에 바위가 있어 배가 부서지

곤 했다고 한다.

돌방구지에 너덧마지기 되는 넓이의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이 깊어 용마가 나왔다. 여기는 특히 용호재뿌리와 연관이 있는 듯 하다. 서기가 무지개로 변하여 나라로 뻗칠 때 그 용마가 인용(人龍)이 되려고 망부석(望夫石)을 세워 달라고 부탁하여 망부석을 세워주었다.

한편 나라에선 무지개를 좇아 내려와 용이 명주로 칭칭 감겨져 오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망두를 깨뜨려 옆구리에 묻으니 용마가 나가면서 '임자가 죽으니까 용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한다.

제보자 : 김규석(85), 조하영(85), 김홍규(80),
박은성(78), 조추산(83)

4) 대화 4리(大化 4里)

대화 4리는 일산에서 송포면으로 들어오는 307번 지방도로를 따라 송포면의 입구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여러 대화리의 행정리들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마을이다. 대화 4리는 몇 곳의 군주둔지 이외에 작은 야산과 논 주위에 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평범한 농촌이며 마을 앞으로 307번 지방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175가구 651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성저리(城低里)

이 곳은 고대 삼국시대(古代 三國時代)에 한강유역(漢江流域)을 차지하기 위해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가 성을 쌓은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성(城)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성저리(城低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은 성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나 조선 중종(朝鮮 中宗) 때의 『新增 東國輿地勝覽』에 보면 「사포면(蛇浦面)의 들판 가운데에 고토성(古土城)의 남은 터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성(城)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의 성저리 성터는 마을 앞으로 작은 언덕을 이루며 쌓여져 있는데 일부는 군인들의 참호와 함께 군사적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토성은 현재 높이 2m 정도로 만들어져 있고 중간 중간에 잡목들이 자

라고 있다.



덕이리에서 바라본 성저리 마을

⊙ 쇠맷간

쇠맷간은 대화 4리 성저리마을에서 덕이리 한산마을 방향에 있는 지명으로 벌판 쪽으로 조그마한 산이 2개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소의 머리같고 그 앞에 연못이 있어 소가 산 사이에서 물먹는 곳이라 하여 쇠밑간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바쁜 농사철엔 소죽도 줄 수 없어서 이곳에 소를 메어두고 물을 먹게 하였던 곳이라 하여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지금은 경지 정리에 의해 없어졌다고 한다.

● 청지논

성저리의 샘말과 건너말 사이에 있는 논 이름으로 비가 오면 논이 진흙 투성이가 되어 발이 빠지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지금도 이 논엔 비가 오면 발이 빠진다고 한다.

● 허우성다리

송포 삼거리에서 대화리 방향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다리의 이름으로 예전에 대화리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곳에는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즉 이곳을 지날때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게 느껴진다 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능뒤논·능뒤산

성저리마을에서 덕이리 한산마을 방향에 있는 지명으로 앞에서 소개한 쇠맷간 뒷편에 있다. 능뒤논·능뒤산은 잔 언덕 뒷편에 있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 가와지(家瓦地)

가와지는 일산(一山)에서 307번 도로를 따라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대화리(大化里)와 일산 주엽리의 경계를 이루는 마을이다. 가와지란 지명은 예전 이곳에 큰 기와집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이 곳에 박선문씨가 최초로 들어 왔을 때는 모두 갈대밭이었는데 두 형제분이 들어와 박씨의 집성촌(集姓村)을 이루었다고 한다. 예전에 우물을 팔 때 통나무 섞인 토단이 나오고 기와장도 많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고양군지(高陽郡地)』를 보면 옛날 이 곳에서 기와를 굽던 동네였기 때문에 가라지라고 불렀다고 한다.

⊙ 도방굴 고개

삣둥이 고개에서 주엽리 방향에 있는 고개의 명칭으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샛말

샛말은 성저리에서 장성마을 방향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다 하여 사잇말로 불리다가 이를 줄여 샛말로 부르고 있다.

⊙ 삣둥이 고개

대화리(大化里)로 가는 송포 삼거리[신성교통 정류장]에서 307번 도로를 따라 송포면 면사무소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성저리 입구 부근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삣둥이 고개는 예전에 이 고개에 박계신이란 사람이 처음 정착하여 살았는데, 몸이 뚱뚱하여 걸음을 걸을 때마다 뒤뚱뒤뚱 걷기에 '삣둥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그 후 이 고개를 그의 별명을 따 삣둥이 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한 박계신이란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기를 잘 해서 삐때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그 삐대가 사는 마을의 고개라 하여 삐대고개라 하다가 삣둥이 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돌밭

성저리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군부대 방향에 있는 밭의 이름으로 돌들이 많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돌들은 대부분 같은 석질로 인공적으로 때린 듯한 흔적이 있어 혹시 석기가 아닌가 추측된다.

● 가래지논

가와지마을 앞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의 모양이 마치 농기구의 하나인 가래와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논에는 토탄이 많아 일제식민지시대때 연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 구석말

구석말은 성저리에서 덕이 4리 덕위마을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 이름으로 마을의 위치가 구석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밭대논

가와지마을에서 장성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성뜰

성뜰은 성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불리우는 명칭으로 지금도 이 성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다. 지금의 성뜰은 성저리마을에서 왕산 방

향으로 길게 이어져 남아 있다.

⊙ 가출등세

성저리 샛말 앞에 있는 지명으로 성저리 토성 등성이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곳을 특히 가출등세로 부르는 것은 예전 토성등세에 집이 한채 있어 붙여진 것이라 한다.

제보자 : 장경순(66), 박선문(87), 조달순(72)

5) 대화 5리(大化 5里)

대화 5리는 일산에서 송포면 면사무소로 가는 도중 중간지점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인데 앞에서 소개한 대화 4리 다음 마을이다. 대화 5리는 다른 곳에 비해 많은 주민이 살고 있다. 자연촌락 지명으로 대화 5리는 장성마을이라 하는데 대화리의 여러 마을 중에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은 다른 송포면 지역에 비해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어 인구가 밀접되어 있다. 1989년 통계로 196가구 81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장성(長城)마을

대화 5리 장성마을은 한국 전쟁으로 인(因)하여 장단군(長湍郡) 지역에서 남하(南下)한 이주민들이 처음 거주했던 피난민 수용소가 마을 이름으로 변한 것이라 한다.

원래 이 마을 부근지역은 무인야산 농경평야(無人野山 農耕平野)뿐이었는데 장단군(長湍郡)의 장단면(長湍面), 군내면(郡內面), 진동면(津東面), 장남면(長南面), 진서면(津西面)의 대부분과 장단면(長道面) 일부인 두매리(杜梅里), 두밀동(杜密洞), 오금동(梧琴洞), 금곡동(金谷洞), 도산동(道山洞), 지능동(智陵洞), 하리(下里), 도막동(道幕洞), 갈현동(葛峴洞), 매현동(梅峴洞), 신기동(新基洞), 운곡동(雪谷洞), 항동리(項洞里), 계당동(桂堂洞)의 피난민들이 경향각지(京鄕各地)에 산거(散居)하면서 역경을 헤메다가 1953년 정부(政府)의 배려로 이 곳을 개척하고 피난민 수용소(避難民 收容所)를 설치(設置)하여 한데 모여 이룬 마을로 처음에는 '수용소(收容所)'라고 불렀다 한다.

그 이후 당시 주민 가운데 장경채(張慶彩), 황진무(黃鎭武), 이구현(李九鉉)씨 등의 주선으로 한강연안의 저지대(低地帶)와 황무지(荒蕪地) 약 30여만 평을 개간(開墾)하여 방 한칸 부엌 한칸씩의 주택(住宅) 300세대 분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짓고 현 대화 5리(大化 5里)에 200세대, 대화 6리(大化 6里)에 30세대, 송포면 구산리(松浦面 九山里)에 30세대, 현 일산읍 주엽리(一山邑 注葉里)에 30여세대, 1954년 7월 20일 '長湍移住 開拓難民 定着事業所 入住式'을 갖고 4년간에 걸친 농경지 개간(農耕地 開墾)을 완성(完成)하였다.

이곳에 정착한지 30여년 간 애로(隘路)와 고통(苦痛)도 많았지만 초가집을 개축(改築)하여 스레트 및 기와집으로 바꾸는 등 농가(農家) 82세대, 비농가(非農家) 102세대가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다.

1986년 1월 25일 난민수용소(難民收容所)라는 이름이 여러모로 거부감을 느끼고 있던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이 마을의 산 증인인 이교흥(李敎興)씨를 필두로 주민총회를 열었다. 장단군민(長湍郡民)으로 마을이 이루어졌으므로 '장단의 장(長)'자를 취하고 무인야산(無人野山)이었던 곳이 마을을 이루었으므로 '이룰 성(成)'자를 취하여 '장성(長成)마을'이라고 결의(決意)하여 동리명칭(洞里名稱)으로 사용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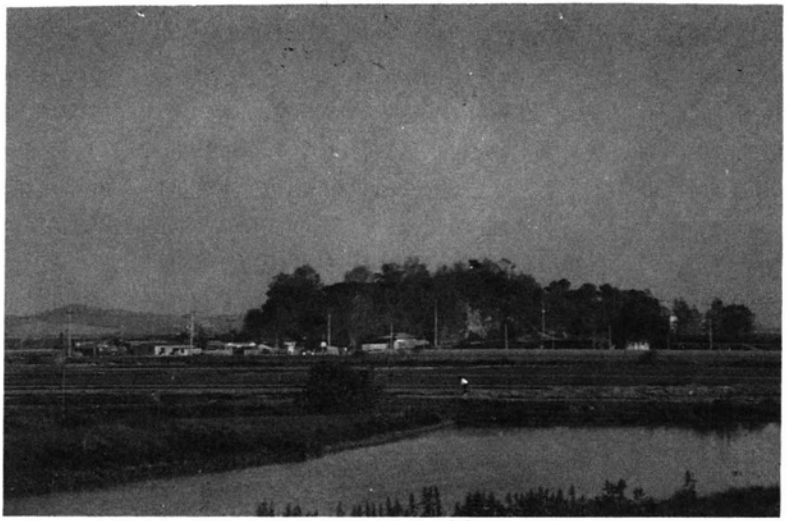
● 장성마을 공동묘지

장성마을에서 왕산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묘지로 상여도가와 함께 수백기의 묘로 구성되어 있다.

제보자 : 김규섭(85), 김홍규(80), 조하영(85)

6) 대화 6리(大化 6里)

대화 6리는 송포면 면사무소에서 한강뚝으로 이어져 있는 307번 지방도를 따라 가다 장항 4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이름이다. 이 마을 동편으로는 주엽리, 서편으로는 한강, 북서로는 법곶리와 경계하고, 남쪽으로는 장항 4리 마을과 인접하고 있다. 현재의 대화 6리는 대부분 큰 벌판에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마을의 주업은 농사이며 그 중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9년 통계로 57가구 22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대화리 멱절 마을

⊙ 멱절

대화 6리 멱절마을은 앞에서 소개한 대화 5리 長成마을이 탄생된 由來와 같이 6.25 이후 장단 피난민 수용소가 정착되면서 무인평야 지대에 생긴 마을로 예전에는 4가구가 살았다고 하며 지금은 많은 주민이 살고 있다.

멱절은 예전부터 이 동리 한강과 접한 곳에 곽산(藿山)이라고 불리우는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는데 '藿'자가 바다에서 나는 해초(海草)인 미역을 의미하므로 동리의 이름도 미역절, 멱절 혹은 멱저리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 한다.

또 다른 유래담으로는, 아주 옛날에 이 山에 '곽사(藿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 스님이 메기를 잡아먹은 후 절이 망하게 되어 그 절을 메기절·멱절 혹은 멱저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멱절산

앞에서 소개한 곽사(藿寺)라는 절이 있었던 산의 이름으로 대화리에서 제일 큰 산이며 예전 한강제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섬이었다

고 한다.

을축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마을까지 들어오려 했는데 이 산의 흙으로 제방을 만들어 물을 막았다고 한다. 이는 멱절 산이 마을을 위해 협조한 것이라고 한다. 이 동네 사람들은 멱절산이 자기 마을과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현재 이 산의 높이는 약 70m, 둘레는 600~700m 정도인데 산위에는 낙엽송과 참나무·아카시아나무 등이 있다.

● 빨래터

빨래터는 멱절마을 입구에 있는 곳으로 예전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 모여 빨래를 했던 곳이라 한다. 지금의 빨래터는 조그마한 바위를 부르는 지명이다.

● 대화 배수장

한강으로 물이 나갈 때에는 대화 배수로를 통과하여 배수관문으로 나가는데, 홍수 때는 한강의 수위가 대화 배수로의 수위보다 높아져 배수관문을 닫게 된다. 그리고는 홍수를 막기위해 한강으로 물을 퍼내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대화 배수장이다. 1969년에 설치한 것으로서 멱절산의 중앙을 가로질러 배수장을 만들었다. 지금 이 곳에는 450마력의 기계 4대가 있다고 한다.

● 대화 배수로

한강으로 통하는 배수로로서 농사철 때 원당→장항리→주엽리 등지를 통과하는 배수로와 장촌→백암으로 이어지는 배수로가 합쳐져서 칠년 배수관문을 통과한다고 한다.

● 칠년 배수관

칠년배수관은 7개 관문의 배수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옹달우물

예전 곽산에 절이 있을 때 스님이 사용한 샘물 약수터로 앉은뱅이가 지나가다가 먹었다 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 우물은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 양어장

1971년에 구 구지를 개간하여 양어장을 만들어 이 마을의 특산 어물인 뱀장어를 잡아 기르던 곳이라 한다.

⊙ 쌍다리

멱절마을에서 한강제방 방향에 있는 소지명으로 예전 이 곳에 배가 있어 배로 한강을 건너 다니다가 1969년 다리를 놓았고 1975년 농지정리 때 다리를 하나 더 놓아 쌍다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쌍수문

1970년 농지 정리를 하면서 원당→장항리→주엽리를 통해 물이 내려오는 곳을 막아 수문으로 만들었는데 수문이 두개로 이루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제보자 : 문희성(80)

7) 대화 7리(大化 7里)

대화 7리는 송포면 면사무소에서 한강 뚝 방향으로 나아가다 우측으로 이어진 56번 군도로 가좌리 방면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대화 7리는 서쪽으로 법곳리, 북으로는 대화 1리와 경계하고 있으며 대화국민학교도 7리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마을 역시 송포면의 다른 지역과 같이 많은 면적이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다. 옛부터 이 마을에는 금녕 김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 왔는데 이들이 이곳에 처음 정착한 것은 1500년의 일이라 한다.[2)]

1989년 통계로 59가구 26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김서(金西)

김서마을은 송포면 면사무소에서 가좌리마을 방향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서쪽에 있는 김씨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김서 마을에는 77가구 302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굴무리

명성운수에서 가좌리 방향 307번 도로 건너편에 있는 마을 지명으로 예전에 윤병사라는 사람이 이 마을 갑부로 살았다고 한다. 이 부

2) 1)과 같음.

자는 구리 암반에 떡을 해 먹고 말을 타고 다녔으며 많은 종을 거느리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날 그 종의 우두머리가 여러 종들과 함께 윤병사를 모함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아챈 윤병사는 그 종들을 모두 한강으로 끌고가 몰살 시켰다. 그 해에 윤병사의 집은 몰락했고 윤병사는 그 때에 "내가 쓰지 못하는데 누가 쓰겠느냐"하며 이 동네우물[박은물] 속에 구리 암반을 집어 넣었다고 한다. 그후 사람들은 이 동네를 구리우물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구리물'이라 부르다가 굴무리로 변하였다고 한다.

지금 이 곳은 6.25때 폭탄을 맞아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으나 땅을 파 보면 기와장이 출토 된다고 한다. 지금 굴무리에는 25가구가 살고 있다.

⊙ 백노덧벌

예전에 한강제방이 생기기 전에 숲과 갈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앞에서 소개한 윤병사가 말을 타고 연습 할 수 있는 마장터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동원하여 닦은 곳이라고 한다.

백노덧벌 길은 지금의 주엽리벌에서 지도읍 토당 4리 삼성당에 이르는 길로 약 30리 정도의 거리였다고 한다.

⊙ 기치골

기치골은 앞에서 소개한 윤병사가 말의 속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시험하던 곳이라 하는데 기치는 말의 박차를 최고로 가해 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고뚝논

고뚝논은 앞에서 소개한 굴무리마을에서 법곳리 이산포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수렁도 많고 길이 좋아[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일제식민지시대 때 이 마을 고등논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제일 많이 매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논은 모두 일곱마지기인데 마을 사람들이 3년만 하고 죽으래도 죽을 수 있는 논이라고 할 정도로 문전옥답이었다고 한다.

● 대화국민학교

대화국민학교는 1946년 송포국민학교 부설 대화분교로 설립하여 1952년 대화국민학교로 승격 독립하였다. 1990년 현재 38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박은물

굴무리마을에 있는 우물의 이름으로 박은물이라는 이름이 붙은것은 윤병사의 구리 암반이 들어 있는 우물물을 바가지로 물을 퍼 먹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우물은 약 60년 전에 없어져 그 형태는 알 수 없고 지금의 고뚝논 자리가 박은물 장소인 것 같다.

⊙ 밤나무 고개〔지서고개〕

송포면 면사무소에서 명성운수 방향에 있는 고개의 이름으로 지금은 지서가 있어 지서고개라고 하나 예전에는 밤나무가 많아 밤나무고개라고도 하였다 한다.

● 흘가바위

흘가바위는 밤나무고개 옆에 있는 소지명으로 예전에 울창한 숲이 있었을 때 사람이 이곳에 지나가면 도깨비 한테 홀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강구재

대화 7리의 야산끝으로 법곳리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한강제방을 막기 전 대홍수가 날 때면 이곳에서부터 물이 굽이져 다시 나간다 하여 즉, 강이 굽어졌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이곳 부근의 논은 모래가 많다고 한다.

⊙ 온[옷]마무골

강구재와 논두렁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의 지명으로 예전에 온[옷]나무가 울창하게 많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서촌(西村)

서촌은 앞에서 소개한 김서마을에서 가좌리 방면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인데 그 위치가 서쪽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모이뒤

예전 들판 가운데 있던 산소였는데 1971년 농지 정리를 하면서 산소 자리를 밀어 버렸다. 그러나 그 산소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모이논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묘의 뒷자리에 있다고 하여 묘의 뒤에 있는 논 '모이뒤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논은 파주 심학산과 일산 고봉산[태미산]의 중간 지점에 있는 묘자리였다고 한다.

이 밖에도 대화 7리에는 한강제방 방향으로 녹악논, 종밑뜰 논, 저장의 논 등의 소지명이 있으나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제보자 : 김홍규(80)

8) 대화 8리(大化 8里)

대화 8리는 일산에서 한강뚝으로 이어지는 307번 지방도를 따라 약 3km 정도 가면 송포면 면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한 장성마을과 명성운수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에는 농협 등 송포면의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고 또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 이외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1989년 통계로 75가구 332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행정리 구역 개편으로 백암(白岩), 내촌(內村), 강서(江西) 마을은 원래 대화 1리였는데 1982년 6월 1일 백암과 내촌마을은 대화 2리로 江西는 대화 8리로 나뉘었다고 한다.

⊙ 강서(江西)

강서마을은 송포면 면사무소에서 장성마을 방향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한강제방(提防)이 생기기 전에 한강물이 江西마을까지 들어와 강의 西쪽에 석굴 나루터가 있어서 강서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석굴 나루는 주엽리의 돌방구지→검새이산→석굴나루→버섯섬을 지나 이산포로 연결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농지 정리로 그 석굴 나루터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 배주골

대화 3리 장말과의 경계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예전에 배를 만들었던 곳이라 하여 배주골이라고 부른다. 배를 만들어 석굴

나루에 띄었다고 하나 지금은 공장지대가 들어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나무서리

대화 1리 양촌(楊村)마을과 경계에 위치한 마을로 예전에 나무가 너무 울창해 나무가 서로 서리서리 얽키었다고 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 대호고개

예전에 울창한 숲이었을 때 김강철이란 사람이 오누이 둘을 기르며 살고 있었다. 어느날 집에서 해온 떡을 먹고 김강철이 그만 배가 아파 변을 보러 간 사이 호랑이가 그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물어가려고 하였다. 그 때 김강철의 딸이 "애이 이 놈의 호랑아 우리 오라버니를 물어 가려거든 날'물어가라" 소리치며 호랑이의 목덜미를 꼭 껴안고 밤을 지세웠다고 한다. 다음날 그 누이동생이 얼마나 호랑이의 목을 꽉 잡았는지 호랑이는 죽고 그 깍지 낀 손도 풀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동네 사람들은 큰 호랑이를 잡은 고개라하여 대호고개라 부르고 있다.

■ 대화리(大化里)의 금령(金寧) 김씨(金氏)의 정착기(定着記)

대화리에 금령 김씨가 살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백년 전의 일이라고 한다. 즉 조선 단종(朝鮮 端宗) 때 단종의 재위기간은 1452년~1455년이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530년 전이다.[따라서 3백년 전이라는 구술자(舊述者)의 이야기는 계산상의 착오(錯誤)인 듯 하다-筆者註] 금령 김싸가가 역적(逆賊)으로 몰려 3족(三族)이 멸(滅)하게 될 위기에 처해지자 살 곳을 찾아 피해 다니다가 이곳에 들어온 것이 그 시초였다. 이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은 후 문중(門中)에 첫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산신(山神)할미가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의 꿈 속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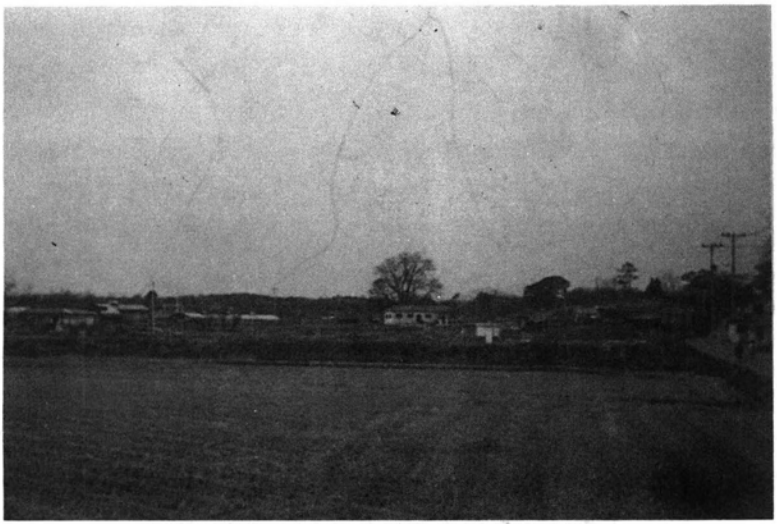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아이를 보내 주려고 하는데, 冠을 쓸 아이를 원하느냐? 아니면 많은 子孫을 원하느냐?" 이에 꿈을 꾼 사람은 지금까지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다 겨우 정착한터라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적막하고 외로왔다. 그래서 벼슬 할 자식을 얻는 것 보다는 자손이 많은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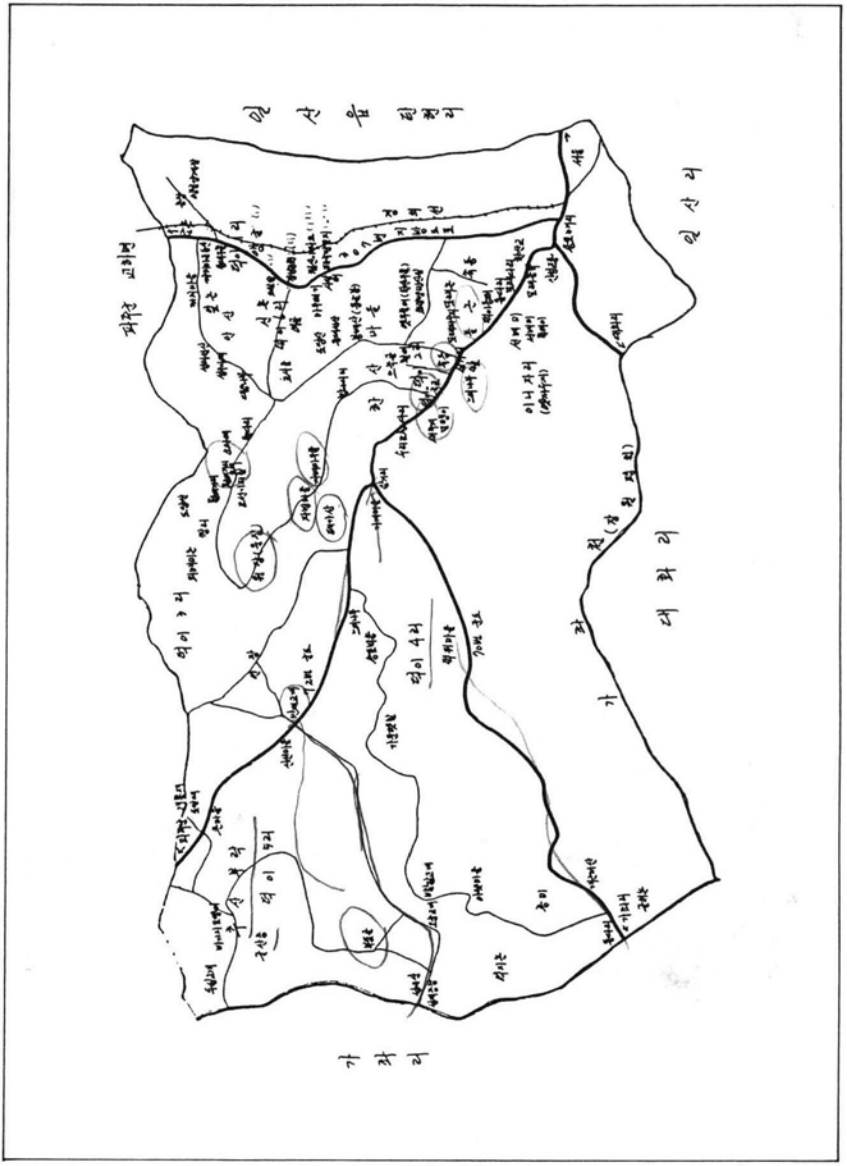
그 후 그 사람은 여덟명의 아들을 낳아 자손(子孫)은 번창했으나, 가세(家勢)는 피어나질 않아 아들 여덟을 모두 한개의 함으로 장가를 보낼 정도로 항상 가난했다고 한다.

제보자 : 양종석(70), 김순례(70), 허순봉(84)

(2) 덕이리(德耳里)



덕이리 마을 지명이 유래된 듯한 덕위마을


가 차 리
대 차 리
인 산 리

덕이리는 일산에서 송포면 방향으로 이어진 307번 도로를 따라 가다가 송포 삼거리에서 파주군 교하면 방향에 있는 마을의 법정리 명칭이다.

덕이리의 위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덕이리의 동편으로는 일산리·탄현리·대화리와 경계하고, 서쪽으로는 가좌리·파주군과 남쪽으로는 가좌리·대화리와 북으로는 파주군 교하면과 인접해 있다.

덕이리는 그 지형상 대부분 지역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은 야산에는 군부대,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의 덕이리는 모두 6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리와 6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촌지역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1) 덕이 1리(德耳 1里)

덕이 1리는 송포면의 입구인 송포 삼거리에서 310번 지방도로를 따라 금촌방면으로 가다 좌측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덕이리의 동편으로는 경의선이 이어져 있어 일산읍 탄현리와 경계하고 있다. 예전에 덕이 1리는 많은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있었으나 지금은 곳곳에 새로 주민이 이주해와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1989년 통계로 272가구 69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본래는 앵굴 외에도 범룡굴과 탄현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었다고 한다. 특히 범룡굴은 앵굴과 지척에 위치하여 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는데 철길이 놓이면서 분리 되었다고 한다.

⊙ 앵굴

앵굴은 송포 삼거리에서 금촌방향으로 이어진 307번 도로를 따라 약 500m 정도 가면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앵굴이라는 지명유래(地名由來)를 살펴보면, 예전에 마을 주변이 앵두 나무로 빽빽히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앵(櫻)굴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일제식민지시대 때부터 아양이라 부르는데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예전엔 성씨의 집성촌 마을이었다고 한다.

● 대감나무

앵굴마을의 중앙에 있던 큰 참나무로 옛날 민간 신앙이 번성할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추수를 끝낸 후 지금의 파주군과 송포면의 야산 등줄기에 있는 대감나무에 동네의 발전과 자기집의 무고를 빌었다고 한다.

이 나무는 세월이 흘러 6.25 때 썩어죽은 나무를 피난민들이 땔감으로 썼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두릅나무와 엽나무가 6.25이후 지금까지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한다.

현재의 두릅나무는 높이가 6m 정도이고 엽나무는 7m 정도이다.

⊙ 안산

안산은 앵굴마을에서 덕이 3리 마을 방향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307번 지방도로 옆에 위치해 있다. 이곳 안산은 본래 마을 앞쪽에 있다하여 앞산으로 부르다가 안산이 되었다고 하며 안산 기슭에는 성씨의 묘가 남아 있다.

⊙ 까치마을

까치마을은 앵골고개에서 안산마을 방향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산의 주인이 까치마을에 살았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까치마을 동산 묘

까치마을 동산에는 예산 군수를 지낸 문중 사람의 묘가 있다. 이 묘 주인은 무과에 급제할 정도로 활 솜씨가 좋았고 또한 활쏘기를 무척 즐기었다 한다. 그러나 한가히 활쏘기만 할 수 없다하여 화살 다섯대를 갖고 나가 차례로 날린 후에 종가래로 밭을 갈며 밭가는 방향으로 갔고 화살이 꽂힌 곳에 당도해서는 화살을 뽑아 다시 반대편으로 날린 후에 다시 종가래로 밭을 갈며 되돌아 왔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천평이 넘는 밭 한때기를 다 일구었다고 한다. 밭의 모양도 매우 길고 활쏘기도 매우 정확해서 화살통은 필요 없었고 항시 화살 다섯개 뿐이었다고 한다.

● 성주사택집

이 마을의 중앙에 있는 집의 이름으로 옛날에 사당으로 사용하였던 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앞논

까치마을 방향에서 앵골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마을 앞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도살장

307번 도로 우측에 있는 곳으로 송포·일산 지역의 가축을 도살하는 곳이다.

● 동네우물

파주군과 송포면의 경계에 위치한 앵굴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이다. 신축년 가뭄에 우물물이 바닥을 보인적도 있었다고 하나 계속 사용하여 왔다. 지금은 수리조합 농지 정리 후 논의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제보자 : 이원순(73)

2) 덕이 2리(德耳 2里)

덕이 2리는 송포(松浦) 삼거리에서 가좌리 방향으로 이어진 70번 군도로를 따라 약 300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마을 앞쪽으로는 대화 4리 성저리마을이 있고, 우측으로는 덕이 6리가 있으며, 좌측으로는 봉배산을 중심으로 덕이국민학교가 위치해 있다. 현재 이 마을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이 마을의 자연촌락 지명은 한산(韓山)마을이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125가구, 48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한산(韓山), 一山

한산마을은 송포 삼거리에서 정면으로 교하면 방향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인데, 한강 제방뚝이 생기기 전에 능곡의 삼성당〔토당 4리〕, 강매리 사뫼, 일산의 한산이 고양군 지역에서 최초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동네라 하는데 한산 마을은 일산 부근에서 하나[一] 밖에 없는 산이라 하여 일산(一山) 한산이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식민지시대 경의선 철도가 건설되어 철길 안쪽, 지금의 일산을 일산(一山)이라 칭하여 그 이름을 빼앗고 이 마을을 일방적으로 행정 개편하여 한산이라고 명명한 후 현재의 한산마을로 지역을 축소하였다고 한다.

또 『고양군지(高陽郡誌)』를 보면 이 곳은 본래 한씨(韓氏) 집안의 山이었기 때문에 한산(韓山)이라고 부르다가 山을 우리말로 하여 '한(韓)뫼' 또는 '한(韓) 메'라고도 불렀다 한다. 그리고 그것이 변하여

할미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조선 영조(朝鮮 英祖)때의 『고양군지』에는 한산촌(寒山村)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바 원래 이 곳의 한자 표기는 한산(寒山)이 아니었나 생각 된다.

● 유대정 묘(兪大禎 墓)

송포면 덕이 2리(松浦面 德耳 2里)에 위치한 묘로 정부인(貞夫人) 광주 정씨(光州 鄭氏)의 묘(墓)가 좌측에 있다. 봉분(封墳) 주위에는 상석(床石) 1기(基), 망부석2기(望桂石 2基), 문인석 2구(文人石 2軀)가 있으며 그 밖에 효종(孝宗) 7년(1655)에 건립(建立)된 대리석(大理石)의 묘표(墓表)는 폭 54cm, 두께 18cm, 높이 120cm의 크기이다.

유대정(兪大禎)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명종(明宗) 7년(1552)에 출생하여 광해군(光海君) 8년(1616)에 사망하였다.

자(字)는 경휴(景休), 본관(本貫)은 기계(杞溪)로서 예조판서 여림(禮曹判書 汝霖)의 증손이다. 선조(宣祖) 21년(1588)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내과(內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고 대교(待敎)를 거쳐,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계기로 일어난 을축옥사(乙丑獄死)와 관련되어 북평사(北評事)에 파천되어 가던 도중 파직당하였다. 그러나 2년 후 宣祖 24년(1591) 이천현감(伊川懸監)으로 등용되어 계속 여러 고을을 다스리고 광해군 원년(光海君 元年)(1609)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승진, 그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부총관(副摠管)을 겸임하였다. 광해군(光海君) 6년 (1614)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이이첨(李爾瞻) 등 대북파(大北派)의 전횡이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조정에서는 도총관겸 변차당상 병조참판벼슬을 주어 정계에 끌어들이려 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 송포삼거리

신성교통 158번 종점 부근이 현재는 사거리이나 예전에는 가좌리(加佐里), 대화리(大化里), 일산(一山)으로 이어지는 삼거리였다. 1965년 금촌으로 이어지는 도로[307번 지방도로]가 새로 생겨 지금은

사거리이나 아직도 송포 삼거리라 부르고 있다.

● 돌다리

송포 삼거리에서 가좌리(加佐里) 방향으로 70번 도로를 따라 약 200m 쯤 들어오면 넓은 들판이 나오고 그 옆 한산 마을에 못미쳐 조그마한 다리가 나오는데 본래 이 다리는 수리조합 농지 정리가 되기 전에는 돌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돌다리라 부른다. 현재는 1965년 새마을 운동으로 콘크리트로 다시 만들어졌다. 당시 돌다리의 크기는 길이가 5m, 폭이 3.5m 정도 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모래다리

모래다리는 앞에서 소개한 돌다리에 도착하기 전 약 100m 지점에 있는 다리의 옛 명칭으로 옛날 태미산[고봉산]으로부터 물이 많이 내려오는 홍수 때가 되면 다리를 넘어 모래가 쌓이기 때문에 모래다리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 모래 저수지

모래다리 옆에는 모래 저수지가 있어 농지에 필요한 물이 저장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34년 전 수리조합 농지 정리로 모래 저수지의 형상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한다.

⊙ 축동

현재에는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없으나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앞뜰 논뚝에 읍나무와 오리나무 등이 있어 축동이라 불렀다 한다. 나무의 안쪽을 축동 안, 밖깥 쪽을 축동 밖이라 불렀으며 지금은 이 동네 노인분들만이 축동이라고 부른다. 이 나무의 대부분은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쓰여졌다고 한다.

⊙ 앞뜰

앞뜰은 한산마을 축동 앞의 큰 벌판 이름으로, 예전 한강 대보뚝이 쌓여지기 전에는 가끔씩 물이 들어와서 농사 짓기가 힘들었으나 1965년 수리조합 농지 정리 이후 문전옥답으로 변하였다 한다.

앞뜰이라는 지명은 마을 앞쪽에 있다 하여 붙여졌으며 지금은 대부

분 논으로 조성되어 있다.

⊙ 한박섞골

예전에 한씨와 박씨가 섞여서 살았던 고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指名)인데, 지금의 앵굴고개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양돈장, 공장, 대우철공소가 들어서서 한씨와 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나 여전히 지명은 한박섞골로 불리워진다.

● 옛 느티나무

한산 삼거리 앞에 있던 나무로 그 크기가 인근 여러 나무들 중에서 가장 컸는데 70번 도로를 만들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 들논

앞에서 소개한 돌다리 부근에 있던 논 이름으로 들판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한산교

송포 삼거리에서 금촌 방향으로 100m 쯤 떨어진 곳에 있는 다리의 이름이다. 일제식민지시대에 세워졌는데 한산마을 앞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새우지 모탱이

할미[한산] 삼거리에서 가좌리 방향으로 약 100m 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퉁이의 지명으로 예전에 새우지 풀이 많이 번성하였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새우지 풀은 농사에 많은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뽑아버려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 덕이동터

앞에서 소개한 모래 다리 부근의 지명으로 예전 경지 정리 하기 전에 하천을 막던 큰 논뚝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 마루테기

할미마을에서 고사골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으로 산 마루를 넘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이 곳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

다고 한다.

● 모래동뚝

모래다리 옆에 있던 논뚝의 이름으로 모래동뚝은 논뚝을 모래로 쌓아 붙여진 이름이다.

⊙ 고사골

마루테기 넘어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으로 예전에는 민가가 두서너 채 있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이곳을 고사골이라 부르는 것은 이 골짜기 부근 야산에서 산제사를 올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코맹맹 만신집

민간신앙이 널리 대중으로 보급되었을 때 이 마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코맹맹이 만신이 살았는데 그 집을 코맹맹 만신집이라 부른다.

만신의 남편은 침술에 능했다고 하며 이 코맹맹 만신이 마을의 도당굿을 도맡아 진행 했다고 한다. 이 만신은 말을 할 때 코가 막힌 것처럼 말하여 코맹맹 만신이라 불렀다고 한다.

● 한산우물

앞에서 소개한 코맹맹 만신집 부근에 있는 우물의 이름으로 옛날에는 모두 이 우물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묻혀 버렸다고 한다.

⊙ 여골

한산마을에서 덕이 6리 방향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으로 옛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최초로 이 곳에 여씨가 살았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 봉배산

덕이 2리[할미마을]를 둘러싸고 있는 산의 이름으로 옛날 급박한 소식을 전하던 봉화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산이름인데 한산마을에서는 산형태가 둥글다 하여 둥글봉이라고도 부른다. 지금은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 이니자리

한산마을에서 성저리〔대화 4리〕마을 방향에 있는 지명으로 예전 큰 저수지가 있었던 곳이라 한다. 이니자리에 대한 유래는 잘 알 수 없다.

⊙ 도당산

앞에서 소개한 유대정 묘가 있는 산의 이름으로 예전에는 코맹맹 만신이 고을에서 하얀 백미를 거두어 동네가 번성하고 무고하게 해 달라고 치성을 드리던 곳이며 또 농사가 풍년들게 해 달라고 음력 3월에 굿을 지내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15년 전에 도당굿은 없어졌다고 한다.

● 선배미

이니자리에서 한산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부터 논에서 벼의 수확이 좋아 좋은 논이라는 뜻에서 선배미라 부른다.

● 덕이국민학교

덕이국민학교는 1961년 송포국민학교 부설 덕이분교로 설립하여 1973년 덕이국민학교로 승격 독립하였다.

1990년 현재 17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수리조합다리

덕이국민학교에서 덕이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다리의 이름으로 원래는 없다가 경지 정리 후 수로를 만들면서 새로 생긴 다리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은늑골

은늑골은 덕이국민학교와 봉배산의 밑 산줄기를 부르는 명칭으로 예전에 은이 묻혀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인데 지금은 30여년 전부터 활쏘기 행사지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활쏘기 행사는 1년에 2번 정도 개최하는데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올 정도로 큰 규모라 한다.

이 날은 기생들이 와서 춤추고 노래하면 마을 유지들이 이마에 돈

을 붙여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활을 쏠때는 활 5개를 준비하였다 하며 행사 전날은 부인과 함께 동침하지 않고, 또 활 쏘러 가는 길에 여자가 앞을 지나가거나 오는 것도 싫어 했다 한다. 지금도 이곳엔 큰 정자가 있는데 이곳을 송호정이라 부른다.

제보자 : 이수영(72), 이삼복

3) 덕이 3리(德耳 3里)

덕이 3리는 덕이 2리 할미〔한산마을〕 봉배산을 중심으로 덕이국민학교 교문 우측길로 들어가 보이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덕이 3리는 자방(子房), 운장, 창리(倉里)로 나누어 지는데, 덕이 3리는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옛 자연촌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94가구 33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자방(子房)

덕이국민학교에서 우측으로 200m 들어와 위치해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덕이 4리[덕위] 마을과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을 자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을 모양이 마치 사과를 쪼갯을 때 볼 수 있는 씨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 방아다리

덕이국민학교에서 자방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 다리의 이름으로 예전 이곳에 방아가 있어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운장

운장은 앞에서 소개한 자방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인데 샛말, 샘말, 운장이라고 불리운다. 자방마을과 인접해 있고 창리마을의 건너말이다.

운장마을은 달리 야산과 야산 사이에 있어서 샛말이라 하기도 하며 샘이 지형적으로 운이터서 마을이 잘 산다하여 운장이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 창리(倉里)

창리는 덕이 3리의 맨 끝에 위치해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덕이 1리, 덕이 5리[추산] 마을과 인접해 있으며 파주군 교하면과 송포면의 경계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의 지명이 창리인 것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관군들이 군량미(軍糧米)를 보관해 두었던 곳[곡식같은 것을 저장하는 장소]이었기 때문에 '창'(倉)자를 쓰고 마을 '리'(里)를 써서 '창리(倉里)'라고 한다. 창고는 지금 최남모 씨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약간 앞쪽에 있었다고 하며 정확한 창고의 위치는 알 수 없다.

⊙ 소라태

창리의 큰 고개 넘어 보이는 야산의 이름으로 거의 파주군과 송포면과의 경계에 있다. 소라태는 예전에 잔 소나무와 솔잎이 많은 산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돌다리

덕이 2리와 3리의 경계 지역에 있던 다리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활터거리 고개 넘어에 있었다 한다. 이 다리는 옛날, 어느 장수가 큰 돌로 다리를 놓았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라 하는데, 이 돌의 길이는 6 m 가량 되었고 새마을운동 이후 콘크리트 다리로 변해 대형 트럭이 지나갈 만큼의 큰 다리로 변했다고 한다. 지명의 유래가 된 그 돌은 지금도 이 곳에 묻혀 있다고 한다.

● 외베미논

창리마을에서 심학산 방면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이 외 떨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자배이 우물

자방에 있는 우물의 이름으로 자방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자배이 우물이라고 한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을 신성시하며 잘 보관하고 있다.

⊙ 도당산

창리마을에서 마을 뒷편 교하면 방향에 있는 야산의 이름으로 야산에서 도당제를 실시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태가산

자방마을에서 덕위마을 방향에 있는 야산의 이름으로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활터마을

창리(倉里)마을 끝 덕이 1리 마을과 경계지역에 위치한 마을로 예전에 활을 쏘았던 장소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활터거리고개

앞에서 소개한 활터마을에서 덕이 1리 마을 방향에 있는 고개의 이름으로 이 마을 산에서 큰 마을 고개까지 활을 쏘아 과녁을 맞추는 행사가 있었던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활터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제보자 : 최남문(81)

4) 덕이 4리(德耳 4里)

덕이 4리는 앞에서 소개한 덕이 2리 마을에서 가좌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좌리(加佐里)와 파주군 문발리, 산남으로 가는 길 좌·우측의 마을이다. 덕이 3리와 덕이 5리 중간에 있는 마을이 덕이 4리 마을인데 자연촌락 명칭으로 덕위마을이라 한다. 옛부터 이 마을에는 당진 최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곳에 처음 정착한 것은 1500년의 일이라 한다.[3]

덕위의 유래는 잘 알 수 없으나 이곳에는 천연 기념물 제60호인 송포 백송(白松)나무가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97가구 379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송포 백송(松浦 白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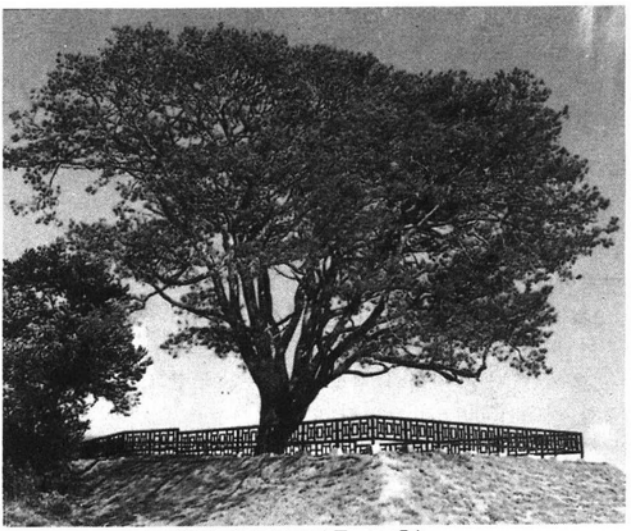
송포면 덕이리 산(山) 207의 언덕에 위치해 있으며 천연기념물(天然紀念物) 제 60호로 지정되었다.

송포백송은 지금으로 부터 약 500여년 전 조선(朝鮮) 세종(世宗) 16년(1434)에 도절제사(都節制使) 김종서(金宗瑞)가 개척한 6진(鎭)

3) 1)과 같음

에서 복무하던 최수원 장군이 고향에 오는 길에 가져와 심은 것으로 처음에는 당송(唐松)이라 불리웠다. 이 백송(白松)은 상록침엽 고목으로 나무껍질이 백색(白色)을 띠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나무는 높이가 10m, 가슴높이의 둘레가 2.9m, 가지의 길이는 동쪽이 5m, 서쪽이 9.8m, 남쪽 8m, 북쪽이 6m, 남·서쪽이 길게 자랐으며 근원경(根元徑)은 긴쪽이 65m, 짧은 쪽이 50cm 쯤 되며, 1.4m 높이에서 두갈래로 갈라져 있다. 갈라진 다음 50cm 쯤 올라 가서 5갈래로, 작은 가지는 두 갈래로 각각 갈라졌기 때문에 역삼각형으로 보인다.



송포백송(천연기념물 60호)

⊙ 언장

언장은 덕이 4리에서 3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으로 언덕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설이 있고, 언덕의 줄기가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산의 모습이 마치 노루가 그늘 아래 앉아 있는 모습

이라 하여 '그늘 음(陰)'자와 '노루 장(獐)'자를 써서 음장이라고 붙인• 이름이 변하여 언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 종미(終未)

덕이 4리에서 가좌리(加佐里)로 가는 70번 군도로에서 덕위마을의 제일 끝 지역의 지명으로 마을의 위치가 덕이 4리의 제일 마지막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가운데말[간뎃말]

앞에서 소개한 송포백송에서 가좌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덕위의 여러 마을 중에서 그 위치가 가장 중앙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빨강고개

덕이 4리와 덕이 5리의 경계에 있는 고개의 이름으로 옛적부터 산에 풀과 나무가 없어 온통 빨간 흙만이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그러나 지금은 왕성한 나무와 풀로 이곳을 뒤덮고 있다.

⊙ 아랫마을

빨강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그 위치가 아랫쪽에 있어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꾀꼬리봉

덕이 4리의 웃말과 웃말 넘어 자방마을과 인접해 있는 산의 이름으로 산의 형상이 꾀꼬리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보자 : 최달용(83), 최명호

5) 덕이 5리(德耳 5里)

덕이 5리는 덕이 4리 덕위마을에서 300m 지점에 있는 만재이고개에서 부터 파주군(坡州郡) 문발리에 걸쳐 위치한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자연촌락 지명은 추산(秋山)마을이다.

이 마을의 중앙으로는 72번 군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70가구 31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 추산(秋山)

추산은 덕이 5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이 마을 중앙에 위치한 도당산에는 도당굿을 지내는 큰 가래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이 나무가 마을 가운데 산에 있기 때문에 '가래나무 추(楸)'자와 '뫼 산(山)'자를 덧붙여 추산(楸山)이라고 불렀다. 일제식민지시대에 추산(楸山)이라는 마을명이 '가을 추(秋)'자 추산(秋山)으로 바뀌어 졌다고 한다.

지금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마을의 유래가 된 나무는 없어지고 또 나무의 위치도 알 수 없지만 마을 명칭은 그대로 가래나무산 이라는 뜻에서 '가라뫼'라고도 불리운다.

⊙ 만재이고개

이 고개는 파주군 문발리·산남리, 고양군 일산(一山)으로 갈리어지는 고개의 이름으로, 예전에는 산이 높고 여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6.25 때 총소리에 놀라서 다 달아났다고 한다.

이 고개는 원래 망원재(望遠在)고개라 불리었는데 이것은 산의 모양이 토끼가 십오야 밝은 달을 넉없이 바라보는 형상이라 해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옥토망원월(玉兎望遠月) 또 달리 망원재는 이 고개에 올라서면 먼곳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는 사람도 있다.

⊙ 도당산[도당제 산]

만재이고개에서 파주군 교하로 가는 도중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추산(秋山)마을 일명 '가라뫼'라고 불리게 된 산이다. 이 마을의 도당굿은 마을 노인어른 건강과 동네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의 깨끗한 쌀을 집집마다 두되씩 모으거나 또는 자금을 모아서 음력 10월 12일에 제를 올렸다고 한다. 도당산은 도당굿을 올리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 신샛말〔신선말〕

만재이고개에서 파주군 문발리와 산남방향의 마을로 예전에는 이곳

엔 산(山)만 있었는데 새로운 동네가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마을의 기온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해 모두 모여서 몸 보신이나 하고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부채질만하여 신선같은 생활을 즐긴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도 한다.

● 우(禹)장군 묘

덕이 3리와 덕위 5리의 경계에 있는 묘로 신샛말 앞의 사과 과수원 안에 위치해 있다.

『고양군지(高陽郡誌)』를 살펴보면 이 묘 주인의 이름은 우응태(禹應台)인데 본은 단양(丹陽)이고 인조(仁祖)때에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군수에 이르렀는데 기운이 장사여서 세상에서 禹장군이라 불렀다. 젊어서 사신을 따라 연경(燕京)에 가니 관상을 보는 사람이 감탄하면서 "이 사람은 세상에 드문 훌륭한 장수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 마침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천하에 떨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에 있었던 망주석·문인석은 없어지고 상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 개똥재

파주군(坡州郡)과 고양군 송포면(松浦面)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인데 현재 약 15호 정도의 집이 남아 있다.

이곳을 개똥재라 부르는 것은 옛날에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개가 와서 똥을 싸고 갔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민가가 없고 산만이 있었을 당시 바람이 불고 추운 곳이라 개들만이 가서 똥을 싸고 놀았다는 장소라 하여 개똥재라고 불리운다고 한다.

⊙ 작은골

추산마을 도당산 앞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으로 예전에 동네가 작은 골짜기 안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암말

추산 도당산 밑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으로 마을은 없고 지형적으로 아늑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 성제산(盛提山)

덕위마을에서 파주군 산남으로 가는 길 옆 성제농장이 있는 곳의 지명으로 한강 제방뚝이 생기기 전에 물의 조수가 이곳까지 드나들어 배의 나룻터 역할을 했었던 곳이다. 성제산은 제방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성하다 하여[盛提]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경오년 한강뚝이 터졌을 때에 지금의 성제농장까지 물이 들어와 제방뚝 역할을 했다고 한다.

⊙ 분둣골

성제산에서 추산마을 방향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주변야산에서 붉은 흙이 출토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달리 이곳에 예전 배를 정박하던 곳이라 하여 분두재란 지명이 붙었다고도 한다.

⊙ 군산능(群山陵)

덕이 5리의 추산마을 앞에 있는 야산의 이름으로, 분둣굴마을을 뒤로 하고 앞쪽으로는 가좌리(加佐里)와 인접해 있다. 현재 이곳에는 연안 김씨의 묘가 있는데 조선시대 연안 김씨가 세도에 몰려 3족이 멸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 비를 땅에 묻어 버렸다고 한다. 그 후 연안 김씨의 후손들이 다시 권세를 잡아 비를 세우는데 그때 당시는 왕릉에 버금갈 정도로 묘를 꾸몄다 하여 군산능(群山陵)이라 불렀다 한다. 또는 연안 김씨의 묘가 무리로 있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도 한다.

⊙ 바가지 모탱이

군산능(群山陵) 주변에 위치한 한 모퉁이의 이름으로 산의 형세가 마치 바가지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두심고개

바가지 모탱이에서 가좌리 방향에 있는 고개의 이름으로 두갈래 길이 있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마음이 갈팡질팡 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억지논

덕이 4리의 덕위와 덕이 5리의 성제산 앞에 위치한 논의 이름으로

농사 짓기가 힘들어서 억지로 짓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오줌고개

파주 산남에서 일산(一山)으로 가는 도로 중간 즉, 지금의 성제산이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오줌고개는 예전에 울창한 숲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이 곳을 지나가면서 항시 잠시 숨을 돌리기도 하고 용변을 보기도 하면서 쉬었다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오줌고개라 불리어졌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로는 이상하게도 이곳에만 이르면 오줌이 마려워 오줌을 누지 않고는 넘지 못하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제보자 : 김진휘(61), 이만식(74), 정인모(89)

6) 덕이 6리(德耳 6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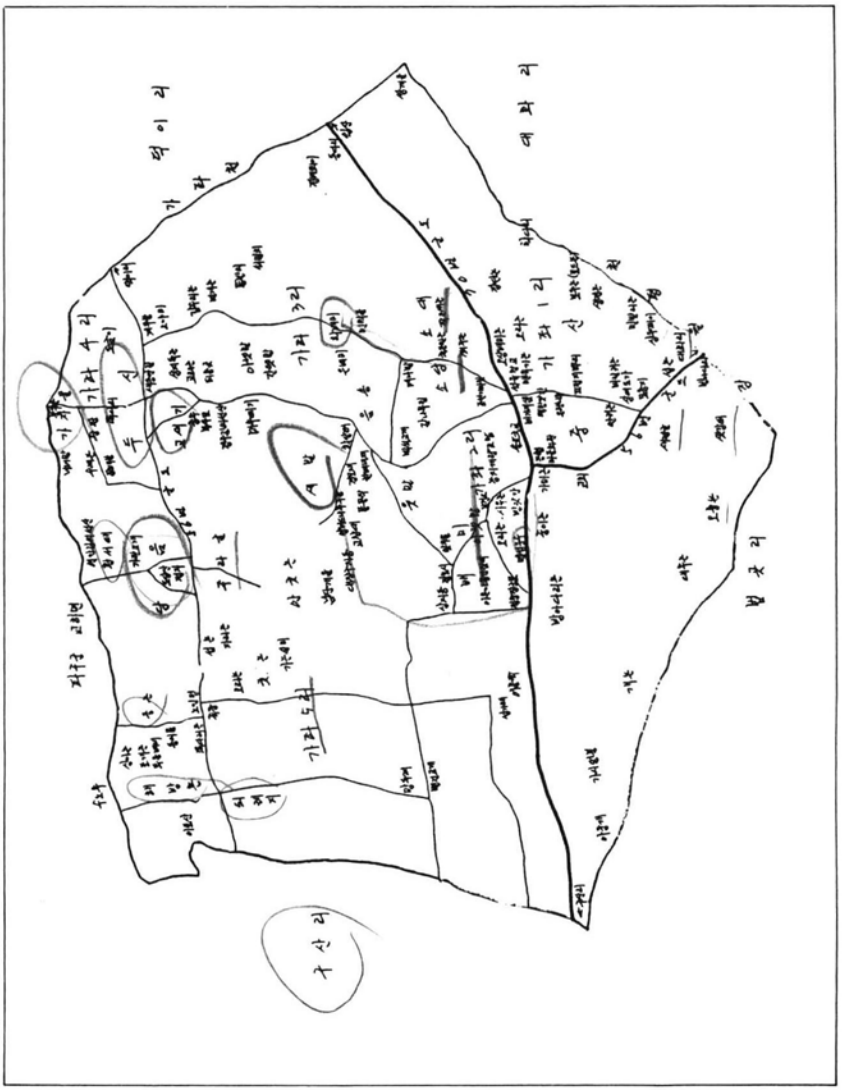
덕이 6리는 송포(松浦) 삼거리에서 금촌으로 가는 307번 도로를 따라 가다 한산교를 지나 태극단 묘지와 근접해 있는 곳의 행정리 명칭으로 철산아파트와 공장이 있는 마을이다. 자연촌락 명칭은 신촌(新村)으로, 1990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198가구 61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덕이 6리 지역은 예전에 일본 사람한테 판 적산지였는데, 7~8년 전 나병환자의 마을이라고 하여 경성농원이 들어 섰고, 그후 조금씩 공장이 생기더니 지금은 큰 공장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철산아파트도 모두 적산지 였는데 새로 생긴 새 마을이라 하여 新村이라는 지명(地名)이 붙어졌다고 한다.

제보자 : 이수영, 이원순

(3) 가좌리(加佐里)





가좌리의 지명이 유래된 가자울(개울)

가좌리는 송포면 면사무소가 있는 대화 8리를 기준으로 볼 때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위치를 살펴보면 가좌리의 북서쪽으로는 파주군 교하면 산남리와 경계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덕이리, 남쪽으로는 대화리와 서쪽으로는 구산리·법곳리와 경계하고 있다.

현재 이 마을은 모두 5개의 행정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 논농사에 종사하는 토박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예전부터 이 마을에는 전주 이씨, 경주 김씨, 여주 이씨 등의 성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약 20여 년 전에는 주로 딸기를 재배하여 부업으로 소득을 올렸다고 하나 지금은 하지않고 여름철에 깻잎을 재배하고 있다.

가좌리의 지명 유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래설이 있는데,

첫번째로 지금의 가자울에 예전에 가재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물이 하도 맑고 시원해서 가재들이 살 정도였다고 한다. 가좌리라는 명칭은 이 가재우물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두번째, 가자울에는 개울이 여럿 있었는데 이 개울에 가재들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현재의 가좌 5리에서 예전에는 가재가 많이 잡혔다고 한다. 이때문에 가좌리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가좌리(加佐里)는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한 부군면 폐합 당시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 법정리 명칭이다.

1) 가좌 1리(加佐 1里)

가좌 1리는 일산에서 70번 군도로를 따라 구산리 방향으로 오다가 덕이 4리[덕위] 마을을 지나 가좌리고개를 넘어 좌우로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본래 가좌 1리의 자연촌락 명칭은 중산말과 소대인데 대부분 다른 송포면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다. 예로부터 이 마을에는 전주 이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다고 한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83가구 31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가좌리의 첫시작은 동다리에서 이루어진다. 동다리는 음송굴동에서 생긴 말인데 음송굴동은 가좌천을 막았던 여러개 논뚝 중의 하나였다. 가좌천은 장월평천으로 합류하고, 장월평천은 한강으로 흘러들어간다.

글퀴논은 음송굴동의 활위고로서의 구실을 했다. 활위고란 수위가 높아져 동이 터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높은 지대로 안전하게 물을 빼내는 시설을 말한다.

도로 양 옆으로 펼쳐진 들판에는 오픈편에 진배태이, 작은새논, 쇠주논, 축동밑논이 있고, 왼편에는 석유창고 아래로부터 오상배미논, 오리논, 장단논 학다리논[육개즙], 맨드기논, 생견논, 보드논, 민발리논, 모롱지, 상두제이, 섶논, 안귀논, 바깥귀논이 있다. 이중 학다리는 유난히 전설이 많고 심학산 깊은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오리논에 붙어서 바가지샘이 있다.

쌍개울 아래 고리포동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가좌교가 있으며 예전에는 배미에서부터 고리포동으로 흘러들어가는 개울이 있었고, 개울을 따라 세갱굴, 방아다리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 중산

가좌 1리를 구성하는 큰 자연촌락의 명칭으로 70번 군도로 주변에 있다. 이 마을 중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예전에 이 마을로 배가 드나들었는데 배는 주로 중선(重船)이었다. 중선은 끄정지뿌리까지 와서 은행나무에 밧줄을 매두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중선[重船말]'으로 불렀는데 도중에 음이 변하여 이제와서는 '중산' 또는 '중섬말'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는 1600년경 파평 윤씨가 처음 마을에 정착할 당시 인근 음송마을과 율리마을 사이 야산에 정착하였다 하여 중산(中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소대[小唐]

소대마을은 앞에서 소개한 중산말 건너편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예전 감나무집과 청기와집 사이에 작은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이 연못을 '소당'[작을 소(小), 못 당(唐)]이라 불렀었는데 소대는 '소당'에서 온 지명이라 한다. 또 달리 소당은 동네모양이 솥뚜껑처럼 둥글고 배겨지게 생겨 붙여진 지명라고도 한다.

⊙ 개근너산

개근너산은 일산에서 구산리 방향으로 이어진 70번 도로 좌측에 있는 야산의 명칭이다. 개근너산은 개울 건너에 있는 산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지명인데 개울은 가좌천을 말하는 것으로 가좌리에서는 개근너산이라 부르지만 덕이리에서는 달리 종미동산이라고도 부른다.

● 음송굴동, 동다리

저수를 위하여 개울을 막는 것을 동[뚝]이라고도 하고 보[뚝]라고도 한다. 또한 동을 쌓는 행위를 '동맥이 한다'고 한다. 동맥이는 추수직후에 하는 것으로 겨우내 잡아두었던 물을 봄이 되면 모내기에 이용하는 것이다. 동은 동네마다 한두 개씩이 있는데 큰 것은 폭과 높이가 3~4길에 이르고, 큰 동을 막는데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일해도 4~5일이 걸린다.

모내기가 끝날 무렵에는 동을 터놓는데 이렇게 되면 통로가 없어지므로 불편을 막고자 다리를 놓게 된다.

음송굴동은 현재의 가좌천을 막았던 여러 동 중의 하나로서 가좌 1리·3리 앞의 벌판에 물을 대주었고 동다리는 음송굴동이 터져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다리였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소대논

소대마을 앞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소대마을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글퀴논

앞에서 설명한 동다리 못미쳐 도로 왼쪽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음성굴동에 물이 차면 항상 이리로 물을 빼게 되어 물에 섞인 흙이 이 논을 긁고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진배태이

진배태이는 동다리에서 가좌리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이다. 봄이면 수십명의 경작자가 물을 푸게되는데 배태이[술독]에 술을 져다놓고 한편으로 목을 축여가면서 일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작은새논

진배태이 논에서 가좌리 방면으로 있는 논의 명칭인데 논 이름의 유래는 새로 장만한 작은 논이라 하여 붙여진 것이다.

● 축둥밑논

축둥은 소대마을을 두르는 논뚝의 이름이다. 높은 논두렁을 연상하면 좋은데 아래가 1m 50㎝ 가량, 위가 1m 가량으로 사람이나 소가 다닐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축둥위에는 물푸레나무등을 심었다고 한다.

축둥밑논은 축둥 아래에 있는 논이라는 뜻이다.

● 오상배미논

오상배미논은 소주논에서 70번 군도를 지나 왼편에 있는 논의 이름인데 예전에 흉년이 들어 이 논의 주인이 하도 배가 고파 밥 한상과 바꾸어 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오리논

오상배미 밑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오리를 놓아 기르던 논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논에 오리를 기르면 해충도 잡고 흙탕물을 일으켜 벼의 생장에 유익하다고 하여 예전에는 일부로 오리를 놓아 길렀다고 한다.

⊙ 학다리

장단논에서 장월평천 방향으로 있는 곳의 지명이다. 이곳 학다리에

는 풍수지리설에 의한 지명유래가 있는데 즉, 심학산의 모양이 마치 학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구산리에 두고 양쪽 날개를 편 형상이라 한다. 이곳 학다리는 심학산 학의 다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또 예전에는 이곳 들판 가운데 높이 솟은 산이 있었는데 명당자리인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그후 어떤 사람이 지관을 앞세워 이곳에서 명당자리를 찾아냈다. 그후 땅을 파는데 곡괭이에 무언가 걸렸다. 무심결에 힘주어 일으키니 그 순간 학이 다리가 부러진 채 날아가버렸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세번째로는 예전에 이 근처에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었다. 그 위에 흙을 뿌렸기에 흙다리라고 불렀는데 부르다보니 학다리로 변했다는 것이다.

● 가좌교

『고양군지』에 보면 고봉산 서쪽에서 시작된 삼정천(三丁川)의 하류가 흐르고 있다. 현재는 철근콘크리트의 암거로서 가좌교로 불리우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즉, 토교(土橋) : 가좌동리 야미(夜味)에 있으니 바로 고봉의 서쪽 언덕에서 나오는 삼정천의 하류인데 물의 처음은 교하의 남쪽 율곡 남쪽에서 발원한다. 하류의 합류지점이 있는데 다리 높이는 두어길이 되고 길이는 7~8간이나 된다. 냇물이 사포면(巳浦面) 법수산포구(法首山浦口)로 흘러들어 바다로 들어가는데 상선이 때때로 조수를 따라 다리 부근까지 와서 정박하기도 한다. 다리 부근은 예로부터 명승지로서 유명하다.

⊙ 육개급

앞에서 소개한 학다리의 별칭으로 그 유래는 여러개의 개울이 이러저리 6개 지류로 있다고 하여 부르는 지명이다.

● 쇠주논[소주논]

작은새논에서 가좌 2리 방면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술의 일종인 소주와 관련이 있어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 생견논

보드논 근처에 있는 논의 이름인데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고 한다.

⊙ 끄정지뿌리

송포국민학교에서 대화리 가는 방향에 있는 산줄기의 이름으로 그 유래는 풍수지리적으로 살펴 볼 때 심학산의 산줄기가 끝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끝나는 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끄정지뿌리로 변한 것이라 한다.

● 보드논[버드논]

학다리논 옆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에 이 논자리에 큰 버드나무가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모롱지 논

중산마을 바로 앞에 있는 논의 이름인데 모롱지는 모퉁이라는 뜻인 듯 하며 이논이 산모퉁이 끝에 딸려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섶논

장월평천 옆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흔히 개울 옆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논 이름인데 예전에는 개울이 흐르던 논이다. 물푸기는 쉬웠지만 홍수가 나면 아주 쌀을 못먹었다 한다.

● 안귀논, 바깥귀논

끄정지뿌리에 바싹 붙어서 사람의 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안귀논은 마을 안쪽에 있는 것이며 바깥귀논은 마을 바깥 방향에 있는 논이라 한다.

⊙ 상두제이

앞에서 소개한 끄정지뿌리 부근에 있는 지명으로 그 유래는 아 마을의 상여도가가 이 근처에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지금 상여도가는 남아 있지 않다.

● 맨드기논

중산말에서 대화리 방면으로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에 이 논의 주인 이름이 만득이 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민발리논

맨드기 논에서 대화리 방면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이 논 주인의 집

이 파주군 문발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물구리

가좌 1리 소대마을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이논 주인의 친정이 물구리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방아다리

끄정지뿌리에서 가좌교로 가는 방향에 있던 다리의 이름으로 지금은 현존하지 않으나 예전에 이곳에 방아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하기도 하고 방아개비가 뛰어넘듯이 쉽게 건널 수 있는 다리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가좌리와 대화리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바가지섬[샘]

가좌 1리 중산마을 석유창고 앞에 있었던 샘의 이름으로 그 유래는 예전에 두레박이 필요없는 얕은 샘이라서 꼭 바가지로 물을 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얕아도 물이 잘 나와서 예전에는 중산마을 전체가 사용했다고 한다.

⊙쌍개울

앞에서 소개한 학다리 근처에 있는 소지명으로 쌍개울의 유래는 가좌천과 장월평천이 두개울이 합쳐지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고리포동

고리포동은 가좌리에서 대화리 방면에 있는 지명으로 논뚝의 주인이 수세로 논 한마지기당 벼 한말씩 고리를 받았던 동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리포동은 넓은 벌판을 장악한 동이라는 의미로 지금의 법곳리 동·서촌과 도촌에까지 물을 대주었다고 한다.

●세갱굴

세갱굴은 중산마을 앞에 있던 큰 연못의 이름으로 지금은 없으나 예전에 베미마을에서 내려오던 개울이 갑자기 펑퍼짐해지면서 만들어준 커다란 연못인데 여름이면 수십명의 아이들이 함께 헤엄을 쳤던 곳이라 한다.

●장단논

오리논 근처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에 이 논 주인의 고향이 장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송포국민학교

중산 마을에서 배미 마을 방향에 있는 국민학교 이름으로 1935년 송포공립 보통학교로 설립인가를 받고 1935년 4월 5일 개교하였다. 1990년까지 모두 53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은행나무

중산마을 송산교회 앞에 있는 경기도 지정 보호수인데 그 높이가 20m, 둘레가 7.2m 정도이며 수령은 약 520여 년 정도이다. 나무 속은 비어 있으며 구미호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은행나무고사

은행나무 고사는 음력 10월 그믐날밤 8시경부터 동네사람 10~15人이 은행나무 아래에 시루떡, 돼지머리, 막걸리를 차려놓고 국가와 동네의 평안, 개인의 번영을 비는 의식이다. 고사는 1시간 가량 계속되며 그동안, 치성을 드리는 10~15人을 제외한 동네 사람들은 고사광경을 구경하기도 하고 당주집에 모여 일을 거들기도 한다. 당주는 돌아가며 맡는데 고사를 앞두고는 특히 심신을 조심하며 고사의 전과정을 관리한다. 집집마다 한되씩 햅쌀을 내놓으면 이로써 시루떡도 찌고 기타 비용도 충당한다. 고사날은 다른 날에 비해 더욱 조용하고 차분하며 고사가 끝나면 당주집에 모여 떡과 술을 나누어 먹고 집에 돌아갈 때 떡을 나누어 받는다.

●조선기와집, 청기와집

송포국민학교 옆에 있는 집으로 을축년 홍수에 태백산 벌목업자들이 서울의 상인과 계약을 맺고 재목을 한강으로 떠내려보냈는데 서울서 미쳐 건져내지 못한 목재가 법곳리 도촌근방까지 떠내려와 이곳 사람들이 건져냈다고 한다.

조선기와집 주인은 이 재목을 사들였는데 다시 운반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한강의 조수 때에 맞춰 현재의 장월평천에 재목을 띄우게

하여 동다리께에서 건져냈다고 한다.

이 재목으로 지어진 집이 중산의 조선기와집과 소대의 청기와집이다고 한다.

●감나무집

송포국민학교에서 가좌 3리로 넘어오는 고개 어귀에 있는 집의 이름인데 뒤뜰에 감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보자 : 이동식(90)

2) 가좌 2리(加佐 2里)



대화리 방향에서 본 가좌리(중산·배미 마을)

가좌 2리는 앞에서 소개한 가좌 1리에서 구산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좀더 자세히 말하면 지금의 정미소가 있는 곳이다.

가좌 2리의 자연촌락 명칭은 율리 또는 배미라고 불리우며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남아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78가구 305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가좌 2리에서 가장 큰 건물인 방앗간은 동네의 시작임을 알리며 가좌 1리와 인접해 있다. 방앗간 아래·위로는 논들이 있는데 아래에 가마논이 있고, 위에 오리논과 시우논이 있다. 방앗간 앞으로 난 길로 길게 들어가면 농지 개량 조합과 보건소가 나타난다. 보건소 위로 동네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이 있어 따라가면 앞우물이 있고, 마을회관 옆으로 서너채 가옥이 들어선 자리에는 아혼 아홉 칸짜리 집의 터가 있다.

밤나무가 많아서 마을 이름조차 율리라 했는데 '배미'라는 명칭도 함께 쓰였다 한다. 밤나무가 몽땅 없어진 것은 일제식민지시대 말기라고 하는데 땔감이 없어서 나무뿌리, 풀뿌리도 남아나지 않던 시절에 사람들이 몰래 나무를 베어가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율리 동산아래는 명성운수 종점이다. 종점에서 길을 비껴 나와 주위를 둘러보면 생소한 이름의 논들이 많다. 중이논, 대추논, 오룡논, 성가래, 어름작, 방아다리논, 가시덤블논, 개논, 아웅개논 등이 있다.

농로를 따라 동네 외곽을 돌면 산자락에 상지독이 붙어 있는데, 상지독을 달고 있는 이 산이 사모시이다. 사모시 앞으로 난 길은 보건소 앞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길을 기준으로 남쪽을 아랫말, 북쪽을 웃말이라 한다. 웃말에서 똥골짝을 넘어 가좌 3리로 갈수있다.

예전에 배미에는 두레패가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는 멩게안 사줄다리기라는 놀이도 있었다 한다.

⊙ 율리, 배미

율리, 배미는 가좌 2리 마을 전체를 부르는 자연촌락 명칭이다.

율리라는 명칭은 1500년경 경주 김씨가 이곳에 처음 정착하면서 먹고 살 방편으로 동산에 밤을 심었는데 특히 밤맛이 좋았던데서 유래했다 한다.

배미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첫번째는 배미의 속뜻이 율(栗) 인고로 율리의 다른 표현이며 두번째로 동네의 옛이름인 야미촌(夜味村)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미가 되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이 동네가 길고 굴곡이 심한 동산을 따라 형성된 까닭에 뱀같이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을축년 홍수에 동산 끄트머리에 배가 와 닿았는데 그후로 이곳을 배미(배尾)라고 부른 다는 것이다.

●가마논

가마논은 가좌 2리 마을 입구에서 정미소 건너편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의 생김새가 마치 가마솥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조그만 수렁이 있었고 벼가 많이 나던 논이라 한다.

●시우논

정미소에서 농지개량조합 방향으로 가다가 좌측에 있는 논의 이름인데 예전에는 우물이 있었던 곳으로 수렁에서 미꾸라지가 잘 잡혔다고 한다.

●앞우물

가좌리 보건소 앞에 있는 우물의 이름으로 그 위치가 마을 앞에 있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라 한다. 50년전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를 않아 애를 태우다가 마침 지나가는 엿장수가 있어서 물었더니 우물자리가 동산너머 오리논보다 한길은 높으니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올 것이라 했다. 이 말에 따라 이 곳을 파자 엿장수 말대로 물이 나왔다. 그런데 맑은 물이 계속 흘러 넘침으로 혹시 새벽에 물길러오는 아낙이 물에 어른거리는 제모습에 놀라 화를 당할까 봐 우물 옆에 구멍을 내서 물이 넘치지 않게 했다 한다.

●아흔 아홉칸 집터

가좌리 보건소에서 명성운수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에 있는 집터로 지금은 모두 4채의 집이 들어서 있다.

이 집은 구한말 성주이참판이 살던 99칸 집터이라 한다.

●은배미[섶논]

학배미에서 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그 소출이 많아 좋은 논이라는 뜻으로 은배미라 하였다고 한다.

또 달리 은배미를 섶논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가을에 낙엽이 지고 이 낙엽이 썩어 낙엽이 흘러 이 논으로 들어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갑수리논

갑수리 논은 통발리 논에서 두신마을 방향으로 있는 논의 이름인데

예전 이 논의 주인이 갑수리여서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 고래논

고래논은 고새기 마을에서 덕이리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의 모양이 마치 고래와 같이 크고 넓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상지논

상지논은 앞에서 소개한 고래논에서 가좌 4리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상여도가 부근에 있는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되룽곳논

되룽곳논은 은배미 옆에 있는 논의 이름인데 논의 생김새가 예전에 비가 올때 외투로 사용하던 도룽이의 모습과 비슷하고 또 논 근처에 있는 산이 다른 곳에 비하여 튀어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절충장군의 묘

명성운수에서 앞쪽 야산에 있는 묘로 절충장군은 200년전의 인물인데 장군의 묘 앞에는 상석과 망주석 두개가 남아있다.

● 중추부동지사의 묘

250년 전 중추부동지사를 지내신 분의 묘 이외에도 여러개의 묘가 한 곳에 모여 있고 문인석이 10여개 남아있다.

● 대추논

대추논은 명성운수에서 법곳 1리 서촌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인데 땅힘이 좋아서 대추만한 벼알이 달렸다 하여 붙여진 논이름이다.

⊙ 사모시

사모시는 명성운수에서 당음마을 방향에 있는 국유지 공동묘지의 이름이다. 사모시라는 지명의 유래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자식이 이곳에 묘막을 짓고 부모를 사모하며 시묘를 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똥골짝

가좌 2리 배미마을 웃말에서 가좌 3리 음송마을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으로 옛날 개성을 다니던 구도로의 일부였다고 한다. 이 구도로는 성저리→학다리→똥골작→새말고개→화서태→꽃나무골→임진강→장단→개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한다. 똥골짝은 이곳에 이르면 이상하게도 똥이 마려워 똥을 누지 않고는 지나지 못하는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두레패

예전에는 동네마다 두레패가 있었는데 가좌 2리의 두레는 연조가 가장 오래 되었고 웃동네, 아랫동네가 따로 두레패를 가질 만큼 융성했다고 한다.

두레패에 들지 않고 혼자서 농사짓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돈이 있는 사람은 일꾼을 삿고 돈이 없는 사람은 품을 팔아 전체가 두레패에 들었다.

두레패는 회의를 통해 품삯과 일의 순서를 정했는데 하루 일당이 40전이었고 일이 끝난 뒤에 한꺼번에 지불했다고 한다. 40전은 당시 쌀 반말 값이었다. 일당 외에도 밥이 나오고 '희연'이라는 담배도 나왔다. 희연은 10전하는 봉지담배로 서너명이 한봉지를 나눠 가졌다.

두레패가 놀기 시작하는 것은 모내기가 얼추 끝나고 김매기에 들어가면서부터인데 두레패는 꽹과리, 제금, 징, 장구, 북 등을 가지고 다니며, 일나갈 때, 점심 먹으러 논에서 나오고 들어갈 때, 일 끝내고 돌아갈 때마다 한바탕씩 논다.

때로 다른 두레패와 같은 벌판에서 일하게 되는데 연조가 많은 두래패는 연조가 적은 두레패에게 인사하기를 청한다. 만일 이를 거절하면 일이 끝난 후 기싸움을 벌인다.

김매기가 다 끝나면 '호미수세'라 해서 좋은 날을 잡아 산에다 기를 꽂고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즐겁게 논다.

두레패는 경운기가 나와 논갈이를 대신하고 농약이 김매기를 대체하자 사라졌다고 한다. 두레패가 없어진지 약 40년이 된다고 한다.

⊙경주 김씨 선산ㅏ

가좌 3리 새말과 고새기마을 사이에 있는 산으로 약 10기의 경주 김씨 묘가 북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양버드나무우물

새말동네에서 웃말방향으로 있는 우물의 이름으로 예전에 이곳에 양버드나무가 있어 붙여진 지명인듯 하며 특히 일제식민지시대 때 이곳의 우물은 물맛이 좋아 특등급이 메겨졌다고 한다.

⊙웃말·아랫말

가좌 2리 배미마을을 좀더 세분화 하여 위에 있는 마을을 웃말, 아래에 있는 마을을 아랫말이라 부른다.

⊙상지독

가좌 2리 상여도가가 있는 곳의 지명으로 상여도가가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방아다리

명성운수에서 구산리 노루메마을로 가는 방향 좌측에 있던 다리의 이름으로 예전에 이 곳에 방아가 있어 붙여진 지명이라 하나 지금은 없다.

●방아다리논

앞에서 설명한 방아다리 근처에 있다 하여 붙여진 논의 이름이다.

●개논

방아다리에서 서촌[법곳 1리]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다른 곳에 논에 비하여 소출이 많치 않아 개같은 논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가시덤블논

개논에서 구산 2리[장산]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부터 이 논에 가시덤블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름짝

명성운수에서 구산 2리[노루메] 방향으로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

부터 이 논은 어름이 잘 얼어 겨울철이면 항상 얼음판을 형성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이밖에도 가좌 2리에는 종이논·오륭논·성가대논 등 많은 지명이 있으나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제보자 : 이건현(72)

3) 가좌 3리(加佐 3里)

가좌 3리는 앞에서 설명한 가좌 1리에서 송포국민학교 옆길을 따라 북쪽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며 자연촌락 명칭으로는 음송[음성굴]새말, 고새기[신새말] 마을이다.

현재 이 마을은 대부분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여주 이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1989년 통계로 가좌 3리에는 44가구 18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가좌 1리에서 송포국민학교의 아카시아 울타리를 따라 걸으면 박석고개가 있고 이 박석고개는 가좌 3리의 입구이다. 박석고개 옆으로, 송포 국민학교부터 이어온 고개의 이름은 '한배미재'다.

박석고개에서 마루태기까지가 음송인데 음송은 다시 세부분으로 나뉘어지며, 박석고개에 가까운 쪽이 웃말, 마루태기에 가까운 쪽이 아랫말, 웃말과 아랫말 사이가 가운뎃말이다.

웃말에는 길섶으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 밑에 숨어 있다. 우물자리에서 조금 더 가면 송산제가 있었던 자리가 나온다. 학당에서 똥골짝 쪽으로 올라가면 여주 이씨 집안의 사당이 있다. 마을 동산꼭대기 고창대에서 매년 산제사가 거행되며 고창대 아래로 경모제가 있다.

고창대와 마루태기 사이의 언덕 아래가 새말마을이다. 새말에는 양버드나무 우물이 있고 우물아래 고개논이 있다. 새말과 당음사이의 벌판을 굿논이라 한다.

마루태기에서 산길로 접어들어 보이는 마을이 고새기 또는 신새기 마을이라 불리는 곳인데 가좌 4리까지 연결되며 중간지점에 송포교회가 있다.

가좌 3리에는 메나밭이 있고 주변에 은배미[섭논], 학배미[앞고개], 밑논[물막음], 통발치, 쇠미치, 물구리가 등의 논이름이 있다.

상지독 아래로도, 고개논, 번개논, 오애미논 등이 있다.

⊙ 박석고개[박수고개]

송포국민학교에서 가좌 3리 음송마을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작은 고개의 이름으로 예전에는 소롯길이었는데 오가는 사람들로 길이 패이자 길을 넓히고 그 위에 널직널직한 돌을 깔았다고 한다. 이 돌들은 비나 눈이 오면 마차가 미끄러져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박은 것이라 한다. 지금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또 달리 박석고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발음상 쉽게 하기 위하여 박수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지금 이 고개 좌우로는 물푸레 나무 두그루가 있어 이 마을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 한배미제

송포국민학교 뒤에 있는 산길의 이름으로 흙으로 이루어진 작은 소로길이며 한배미제는 이 길이 꼬불꼬불해서 생긴 이름이다.

⊙ 음송(陰松)

음송마을은 송포국민학교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박석고개 넘어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그 유래는 옛부터 고을이 깊고 산이 많은데 산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항상 그늘이 지므로 '음(陰)'자 '송(松)'자를 써서 음송이라고 불렀으며 달리 음성굴이라고도 한다.

⊙ 새말[新村]

송포국민학교에서 두신 마을로 가는 도중 좌측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으로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지명인데 언제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이 마을에는 약 7채의 집이 있다.

⊙ 고새기[신새말]

송포국민학교에 두신마을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을의 이름인데 옛날 이곳에 고씨(氏), 사씨(氏), 기씨(氏)가 살다가 도둑이 자꾸 들어서 모두 떠나버렸다고 한다. 이 고새기는 이들 삼성(三姓)에서 유래했다 하며 지금 현재 이곳에는 13채의 집이 남아 있다.

고새기는 달리 신새말이라고도 하는데 70년 전부터 사람이 처음 들어와 살기 시작하여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당의리(唐義里)'는 고새기의 옛이름으로 추측되는 명칭인데 1987년

송포교회 건립시 출토된 사발로 된 지석에는 이곳이 당의리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한다. 당의리는 당음〔가좌 5리〕의 옛이름으로서 현재의 고새기까지 포함하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송산재[학당터]

송산제는 과거 여주 이씨 문중에서 이규보(李奎報)의 학문을 기리고 후학을 가르치고자 세운 서당이다. 종인은 물론 인근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는데 학동은 지필묵만 준비하고 나머지 경비는 학답의 소출로 충당하였다. 학답은 20여 마지기였는데 일제 강점에도 불구하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500여 명의 학생을 배출하였으나 6.25때 소실되었다고 한다.

● 사당

똥골짝 옆에 있는 건물로 1654년 건립되었고 그동안 몇차례 개수하였다. 여주 이씨 문중의 선조들 위패가 모셔져 있다.

⊙ 고창대

송포국민학교에서 두신으로 가는 도중, 좌측에 있는 경모재 뒷산을 부르는 명칭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산마루가 높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고창대는 달리 꽃도 많이 피어 꽃창대라고도 불린다. 이곳에서 매년 산제사를 지낸다.

⊙ 산제사 장소

고창대의 산제사는 매년 음력 10월 초이튿날 밤에 유학계 주관으로 이곳 고창대에서 산신에게 올리는 제사다.

50년전 상·하 구별이 없어지던 때에 파평 윤씨, 여주 이씨 양쪽 집안에서 모여 유학계를 결성하였다. 유학계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고 한다.

● 경모제

송산재를 건립하신 선조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74년 건립하였다.

● 골짜기논

앞에서 설명한 새말 마을 앞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골짜기 안에 있

는 논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 죽논

고래논 아래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이 질어 무릎까지 빠지는 죽 같은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메나밭

메나밭은 음송마을에 있는 밭의 이름인데 예전부터 이곳에 면화를 많이 심었던 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학배미

학배미논은 메나밭에서 북쪽에 있는 논의 이름인데 예전부터 이곳에 학들이 많이 날아들었던 논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 밑막음[물막음]

밑막음은 음송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네변 중 한곳의 이름으로 네면 중에 삼면은 산이고 밑막음만 논으로 되어 있다.

● 통발치

학베미에서 수로 건너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밑막음 아래에 위치해 있다. 밑막음에서 내려간 물이 모여드는 곳이다. 통발치는 고기를 잡는 도구인데 논의 모양새가 이 도구와 비슷하게 생겨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오애미

고래논 아래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이 뚝 떨어져 홀로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즉, 외배미를 말하는 것이다.

● 겨두물

고래논에서 덕이리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겨두물은 축동곁에 우물이 있었고 이 우물을 겨두물이라 불렀다. 극심한 가뭄에도 겨두물은 마르지 않아 12마지기 논을 모내가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겨두물의 물은 여름에 차고 반대로 겨울에는 따뜻했다고 한다. 겨두물 우

물이 있던 논이 그대로 겨두물 논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제보자 : 황정주(71)

4) 가좌 4리(加佐 4里)

가좌 4리는 법정리 명칭인 가좌리 마을을 중심으로 통과하는 70번 군도로를 기준으로 볼 때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파주군 교하면과 인접하고 있다.

가좌 4리의 경우도 다른 여러 가좌리 마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으나 촌락은 새로이 축조, 보수하여 초가는 거의 볼 수 없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모두 64가구 187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가좌 4리는 크게 안말과 벗말로 구분된다.

벗말을 벌말이라고도 하고 두신(斗新) 또는 새동머리라고도 부른다.

안말에는 가자울과 황서태, 두개의 자연촌락이 있다. 가자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삽다리~문발리간 도로에서 가까운 쪽을 분두금, 먼쪽을 넘어말이라 한다.

고새기에서 두신을 건너가는 길은 새동안길과 교차한다. 버스가 덕이 5리 부뚝굴~새동안길~당음을 운행한다.

두신에서 가자울로 가는 길 오른쪽에 도그미가 있고 왼쪽에 왕판, 쪽다리논, 수캐논, 잠배이물이 있다. 왕판과 쪽다리는 가뭄에도 모를 내먹던 논이었다.

분두굴, 넘어말, 황서태는 모두 산마을이다. 황새태를 지나면 북쪽에 연안 김씨의 선산이 있다. 남쪽으로 가면 가좌 5리에 당도한다.

56번 도로 주변 길가에는 노인정과 정자가 있고 축동도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정자가 있는 산이 도당산인데 예전에 도당산에서 도당굿을 했었다고 한다.

⊙ 안말[內村]

안말은 파주군 심학산 안자락 방향으로 들어간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마을 위치가 삼학산 골짜기 안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안말에는 가재울, 황서태, 넘어말, 분두골 마을이 있다.

⊙ 벗말 · 벌말

가좌 4리 안에 있는 자연촌락의 명칭으로 앞에서 소개한 안말에 대해 벗어난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벌말은 이곳과 덕이 5리 사이의 벌판이 넓어서 벌판 방향에 있는 마을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다.

⊙ 두신(斗新)

두신은 앞에서 설명한 고새기 마을에서 56번 군도로 넘어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이다.

이곳은 예전 동뚝이 작아 논뚝의 이용이 불편하고 모내기를 때맞춰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겨 이 보를 확장하려고 물세를 받았다 한다. '두신'이라는 명칭은 물세로 벼 한말씩을 새로 거둔데서 생겼다고 한다. 현재 두신마을은 평범한 농촌마을로 남아있다.

⊙ 새동머리

새동머리는 논뚝을 새동머리라 하는데서 유래한 자연촌락의 명칭이다. 새동머리라 부르는 것은 인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동이며 이 동뒤로 음송굴동과 고리포동이 있어 이곳의 위치가 동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이곳에 동이 생긴 것이 고리포동이나 음송굴동보다 나중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 '새동머리'란 새로 구축된 동으로서 그 위치상 개울의 발원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동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 가자울

앞에서 설명한 두신 마을에서 파주군 교하면 방면으로 있는 자연촌락의 명칭인데 심학산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개울에 가재들이 많았던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 황서테

가자울에서 당음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명칭으로 옛날 이곳에 두 집이 있서 한 집에서는 벼 노적가리를 또 한 집에서는 누룩 노적가리를 해서 쌓아놓았는데 그 위에 황새가 새끼를 쳤다고 한다. 그 뒤로 이 곳을 황서태 또는 황새태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이곳은 길지(吉地)로서 여겨지고 있다.

● 새동안길

앞에서 설명한 새동안머리 부근에 있는 길의 이름으로 아주 옛날부

터 있던 길이라고 한다. 예전엔 지금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당시로선 흔치않은 도로였기에 사람이나 달구지의 이용이 빈번했다고 한다. 그 후 새동안 길은 콘크리트 포장이 된 후 넓어졌다고 한다.

●왕판과 왕판우물

가좌 4리 가자울 마을 부근에 있는 지명으로 논바닥이 커서 왕판이라 부른다. 왕판에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왕판우물'이라 부른다. 겨울철, 왕판우물에서 풀이 나는가 안나는가를 보고 이듬해의 풍년·흉년을 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잠배이물

가좌 4리 넘어말에 있는 우물의 이름인데 현재는 논 가운데 있다.

이 우물은 물이 잘나고 겨울에는 따뜻했으나 지금은 모두 메꾸어서 흔적만 남아있다.

●쪽다리

앞에서 설명한 왕판우물논 옆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그 유래는 예전에 나무쪽으로 만든 나무다리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제보자 : 이상만(68)

5) 가좌 5리(加佐 5里)

가좌 5리는 앞에서 소개한 가좌 4리 마을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구산리와 인접하고 있다. 가좌 5리도 대부분 옛 농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5리의 자연촌락 명칭은 주라골, 당음, 되레지, 해방촌이다.

⊙주라굴

당음마을에서 두신마을로 가는 방향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으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조라드리던 곳이었다고 한다. '조라드리다'의 뜻은 '치성드리다'이고 '조라'의 음이 '주라'로 바뀐 것이라 한다. 주라굴은 이곳에서 조라를 드려 붙여진 지명이다.

● 섭논[섬논]

주라굴에서 당음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산위에서 썩은 낙엽 등이 내려와 땅힘을 높여주는 논이라 하여 섭논이라 부르며 달리 물이 풍족하여 모도 빨리 내고 볏섬도 많이 난다고 하여 섬논이라 부르기도 한다.

⊙ 당음

당음은 두신 마을에서 구산리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명칭으로 1550년경 수원 백씨가 처음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였으며 마을의 안녕을 위해 도당을 모셨는데 도당나무가 장대하고 잎이 무성하여 도당굿하는 곳에 항상 커다란 그늘이지므로 당음(堂陰)이라고 불렀다 한다.

또는 도당에서 치성받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므로 당음(堂音)이라 했다는 사람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을 산에서 초당을 짓고 한시를 읊으니 동네에 시읊는 소리가 가득히 낭랑했다고 하여 당음(唐音)이란 지명이 붙여 졌다고도 한다.

⊙ 가잘고개

가자울 마을과 당음 마을사이에 있는 고개를 부르는 지명으로 가좌리의 옛 지명인 가재울에 위치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 되레지

되레지는 주라굴에서 구산리 새태말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 명칭으로 이곳에 살던 사람이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다른데로 떠나거나 이사를 했다가도 이곳을 못잊어 돌아왔다는데서 '되레지' 혹은 '돌여지'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이곳에 살다가 다른데로 떠나면 일이 잘 안되어 곧 돌아오고 만다는 데서 생겨난 지명이다.

⊙ 해방촌

파주군 교하면 수노루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예전 해방이후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남산개울

교하면 수노루 꼭대기에서부터 가좌리 당음마을과 되레지마을 사이의 벌판으로 흐르는 개울의 이름으로 심학산에서 볼 때 이 개울이 심학산 남쪽 산봉우리 밑으로 흘러 붙여진 이름이다.

●대장구지동

남산개울을 막은 논뚝[제방]의 이름이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싱아논

해방촌 마을에서 수노루 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부터 이곳의 논뚝에 싱아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싱아논의 웅덩이에 파이프를 박아 도촌, 이산포에서 끌어다 농경용수로 사용한다고 한다.

●조개논

싱아논에서 해방촌 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의 생김새가 마치 조개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돌논

조개논에서 당음 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의 토양이 찰진흙으로 이루어져 마치 돌처럼 단단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두룽배미[두룹논]

조개논 밑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명칭의 유래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으나 민담이 하나 전한다. 그 내용은 약 40여 년 전 이 논의 주인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었다. 이 주인은 한나절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인 열냥을 요구했고 열흘을 일해도 열냥을 달랬다. 그래도 어느 한 사람 품삯을 속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동지논

앞에서 소개한 두룽배미논 밑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이 논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연못이 아니고 당당히 벼슬에 오른 연못이

었다. 지금은 노루메마을에서 물을 끌어가는데 연못이 벼슬한 내력은 다음과 같다.

사신이 길을 가다 이 물로 목을 축이고는 어찌나 달고 시원한지 '동지' 벼슬을 내려주었다 하며 또 달리 아홉해째 흉년이 계속되던 때 마을 들판이 온통 뽀얀데 한 곳만이 퍼랬다. 이를 본 고을 군수가 한 우물 덕분으로 마을이 모를 낸 줄을 아시고 동지벼슬을 내려 우물의 덕을 치하했다고 한다.

⊙ 망두께

되레지 마을에서 법곳리 방향에 있는 지명으로 망주 여섯개와 석인 4개가 이 곳에 모여 있어 부르는 이름이다.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피장사 전설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피장사가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한다. 피장사는 거메에서 나서 자란 힘센 장사의 이름이다. 피장사가 열두살 나던 해 동네 어귀에 정박한 담배선의 주인에게 담배를 달랬다가 들어주지 않자 담배선을 끌어다가 구산꼭대기에 올려 놓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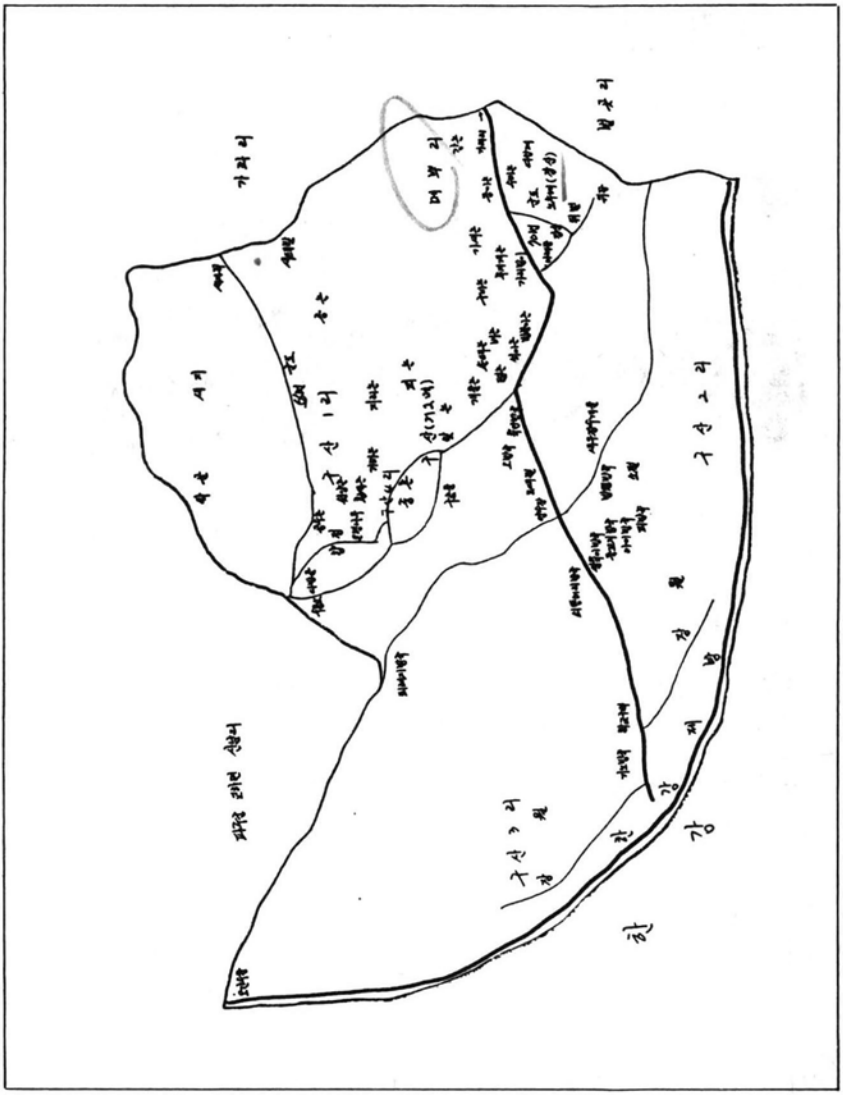
집안에서 이일을 알고 나쁜 짓을 일삼는 피장사는 장차 삼족이 멸하는 죄를 저지르고야 말 것으로 생각하여 뒤주 속에 가두어 죽이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구덩이에 들어가 보라고 시킨 후에 멋모르고 들어간 피장사를 그대로 생매장하였다고도 한다.

⊙ 도당산

당음 마을 옆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1년에 한번씩 늦은 가을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마을의 평안을 비는 굿을 했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도당굿이 없어진 것은 6.25이후라고 한다.

제보자 : 박지병(77)

(4) 구산리(九山里)





구산리의 지명이 유래된 거그메 마을, 구산(거북이산)

송포면 구산리는 송포면 면사무소가 있는 대화리를 기준으로 볼 때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살펴 보면 구산리의 동쪽으로는 법곶리·가좌리와 경계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김포군 김포읍과, 남쪽으로는 법곶리와, 북으로는 파주군 교하면과 경계하고 있다.

본래 구산리 지역은 한강 제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농사가 거의 불가능한 갯벌, 갈대밭이었으나 일제식민지시대에 한강제방이 축조되면서 주민이 본격적으로 거주하였다고 한다.

구산리의 경우 대부분의 마을이 옛 농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농업 중에서도 특히 논농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현재 구산리는 모두 4개의 행정리로 나뉘어져 있다.

구산리의 원래 명칭은 구산리(龜山里)였다. 구산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說)이 있다.

첫째는 현재 구산 4리에 있는 산의 모양이 거북이와 닮았다하여 유래한 것이며 둘째는 지금의 구산 4리에 있는 산이 거북이 몸뚱이를 닮았고 구산2리에 있는 산의 모습은 거북이 머리를, 구산 1리에 있는 산이 거북이 꼬리를 닮아서 전체적으로 마을의 모양이 거북이 형상을 이룬다하여 유래한 것이라 한다. 셋째는, 1500년경 전주 이씨와 안산 피씨가 정주한 지역이 거북

이 형상과 같이 생긴 야산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구산리(九山里) 인데 이는 일제식민지 시대 때에 일본인들이 각 지역의 행정명칭을 정할 때 '거북구(龜)'자 대신에 '아홉구(九)'자를 써서 구산리(九山里)라 하였으니 지금도 바뀌어진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라 한다.

현재의 구산리는 대부분 논농사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심학산에서 이어진 산줄기 부근에는 작은 밭들이 조성되어 있다. 구산리의 대부분 촌락은 작은 야산이나 논의 벌판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데 1970년 새마을 사업 이후로 근대적 촌락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1) 구산 1리(九山 1里)

구산 1리는 구산리의 4개 행정리 중에서 가장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행정리 명칭인데 가좌 5리와 많은 지역이 인접하고 있다.

구산 1리의 경우도 송포면의 대부분 마을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으나 촌락의 형태는 대부분 변모하여 근대식으로 남아 있다.

구산 1리의 마을 한 가운데로는 70번 군도로와 56번 군도로가 마을 중앙을 관통하고 있으며 심학산 산 줄기가 마을 뒷편으로 길게 이어져 촌락은 이 산줄기 곳곳에 옹기 종기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가좌리 되레지 마을과 산등성이를 맞대고 있는 마을이 새태말이다. 망두께에서 한발만 내딛으면 뻘건고개인데 뻘건고개가 메뿌리의 처음이다. 새지 꼭을 넘으면 15호 정도가 둥지를 틀고 있는 새지 마을이 보인다. 새지를 지나 심학산 아래 아련히 보이는 동네가 탁굴인데 도로 위·아래가 탁굴이라는 이름의 한 동네인데도 도로 위는 파주군이고 도로 아래는 고양군이다. 지금까지 훑어본 새태말, 메뿌리, 새지, 탁굴을 합쳐 행정리 구분상 구산 1리라 한다.

1989년 통계로 구산 1리에는 62가구 22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새태말

가좌리에서 구산리 방향에 있는 구산리 초입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새태말은 새로 터를 닦은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지명이며 마을이 처음 생긴지는 10년 안팎이라 한다.

⊙ 뻘건고개

가좌리에서 구산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으로 산의 일부가 깎여

럴건 흙이 드러나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메뿌리

파주군 해방촌에서 가좌리 되레지마을 방향으로, 다시 구산리 메뿌리로 이어지는 심학산 줄기 끝이 되는 곳의 지명인데 심학산 끝 줄기라는 뜻에서 메뿌리라 부른다.

⊙ 새지

가좌리 당음마을과 거그메마을 중간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인데 마을과 마을 중간에 있다 하여 새지라 부른다.

⊙ 탁굴

새지마을에서 파주군 심학산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 지명으로 탁굴은 조선 때 이곳에 내시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특히 굴이라는 명칭은 보통 내시들이 사는 마을에 붙여지는 것으로서 충남 서산의 가막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주민들의 설명만으로는 탁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굴이 과연 내시들이 살던 곳은 가르키는 말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굴 혹은 골은 고을이라는 말이 줄어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탁굴을 탑골로 발음하면서 예전 이곳에 커다란 탑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도 한다.

⊙ 행정[향정]

탁굴에서 56번 군도로 건너 한강 방향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조선 초기에 설씨 집성촌이었으나 그 이후 설씨 문중이 다른 곳으로 이주함에 따라 은행나무만 남아 있어 이곳에 새로이 이주해와 살게 된 임씨가 큰 은행나무 아래 잘 지어 놓은 정자를 보고 행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에 경기 감사를 지냈던 사람이 죽은 후 이곳에 묻혔을 때 친족들이 묘소 양편에 커다란 은행나무 한 쌍을 심었다. 지금 이 산소는 남아 있지 않으나 그 때 심었던 은행나무 두 그루는 살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곳을 한자로 '교정(橋亭)'이라 쓰고 있지만 교(橋)란 한자는 없고 아마 은행나무 행(杏)자를

써서 향정이라 부르던 것이 와전되어 전해진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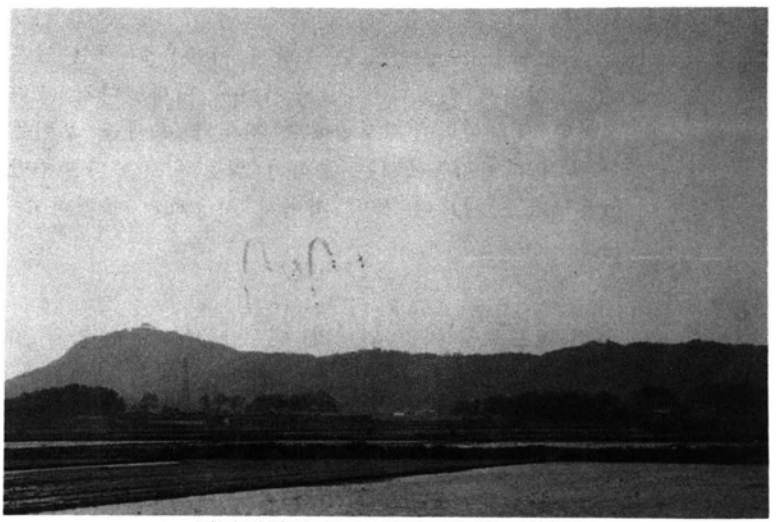
● 향정 은행나무

암나무는 송포면 보호수 나무로 지정되어 있다. 수령은 300年 정도이며, 높이는 25자, 나무둘레는 3.2자 정도이다.

숫나무는 군지정 보호수 나무로 지정되어 있다. 수령은 350年이며, 높이 25m, 나무 둘레는 4.5자이다.

⊙ 거그메[구산]

거그메, 구산은 중촌 마을 앞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지금의 구산리라는 법정리의 명칭이 유래한 곳이다. 구산리는 구산(龜山)에서 유래한 명칭인데 산의 모양이 거북이 같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라 하기도 하며 달리 풍수지리적으로 이산이 거북이의 지세를 가지고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하기도 한다.



가좌리에서 본 구산리 마을과 심학산

⊙ 중촌(中村)

중촌은 향정마을과 구산 2리 노루메마을 사이에 있는 자연촌락 명칭으로 마을의 위치가 중간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다방굴

구산 1리 향정 마을에서 수용소 마을로 가는 도중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의 명칭으로 6.25이전에 이곳이 외지고 한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모여 놀았다 하여 유래한 지명이다.

⊙ 수용소

다방골에서 파주군 산남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한국전쟁 1.4후퇴 당시 피난온 사람들을 위한 수용소를 국가보조로 이곳에 건립했다. 모두 한일자(一) 건물로 두 세 가구가 방 한칸 부엌 한칸 씩을 쓰며 함께 살았다. 이곳에는 수용소가 30호 가량 있었다 한다. 이때의 수용소 지명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 구름물

구산에서 구산 4리 마을 방향에 있는 우물의 이름으로 예전 앉은뱅이가 이 물을 먹고 일어서 걸었다거나, 무지개가 나타났다거나 하는 전설을 가진 신비한 우물이다. 피부병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데 이상스럽게도 구산 4리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민들이 상수도로 이용하려고 했으나 물이 적어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 공수논

다방골에서 56번 군도로를 따라 가다가 향정마을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을축년 홍수에 배가 이곳까지 떠내려 왔다고 한다. 공수논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쉰냥짜리

공수논에서 구산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 12마지기를 쉰냥 주고 산데서 생긴 이름이라 한다.

● 황새논

쉰냥논에서 중촌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옛날 집과 자동차가 조금밖에 없을 때 황새들이 많이 이 논에 날아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가마논

황새논 밑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의 모양새가 마치 가마솥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도당굿산

장산[노루메]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도당굿을 올렸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이 곳 도당굿의 특징은 도당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성주집에서 신사굿을 한다는 것이다. 성주는 돌아가면서 맡는데 굿할 준비를 총괄한다.

제보자 : 오중섭(71)

2) 구산 2리(九山 2里)

구산 2리는 앞에서 소개한 구산 1리 마을에서 한강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현재의 구산 2리는 대부분 논 농사 지역으로 남아 있고 마을의 촌락들은 장산의 조그마한 야산주변과 큰 벌판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구산 2리의 자연촌락 명칭은 장산 즉, 노루메마을인데 예전에 갈대밭이거나 진흙 갯벌이던 것을 한강 제방을 쌓고 또 경지 정리를 한 후 주민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노루메를 삼등분하여 위끝, 아래끝, 뒷벌이라고 하는데 위끝이 장산의 머리쪽이고, 아래끝은 꼬리쪽, 뒷벌은 장산 넘어 마을이다. 위끝의 일부를 새말이라고도 한다.

장산은 산이 매우 영험하여 돌멩이 하나를 건드려도 불상사가 일어나곤 했다고 한다. 지금은 예전처럼 신성시하지는 않지만 2~3년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도당굿을 벌여 동네의 평안을 기원한다.

노루메에는 남원 양씨들이 많이 사는데 이곳에 정착한지 300년이 넘는다고 한다.

장산 마을 뒤편을 감도는 장월평천은 수리조합에서 정리하기 이전인 1950년대까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 때는 하천의 명칭

이 '샛강'이었다 한다. 그 뜻을 물으니 노루메와 한강 사이의 하천이라서 그렇게 부른다고도 하고 고봉산과 한강 사이라서 그렇게 부른다고도 했다. 도촌에서는 '수리조합강'이라 부르는데 수리조합에서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수리조합에서 정리하기 이전의 샛강은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위끝은 치받을 정도로 동네에 가까왔다고 한다. 샛강은 폭이 좁은 곳은 50m, 넓은 곳이 100m가 되었고 깊이는 조수가 밀 땐 세길 이상이고 물이 빠지면 배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한다. 샛강으로 조기, 새우, 동태, 참외 등을 실은 운선이 항시 드나들며 물건을 팔았고 목재 따위를 실은 큰 배도 한강의 조수 때를 맞추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 위끝의 산끄트머리에 대추나무가 무척 많았는데 대추를 실은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대추씨가 아무렇게나 자라서 이룬 대추나무밭이었다고 한다.

위끝쪽의 벌판을 내평이라 하는데 내평에는 움터께, 돌다리터, 금래바닥[이상은 법곳리 지역임], 다랑께, 수미논 등의 논이 있다.

아래 끝 쪽과 뒷벌로는 방죽이다. 방죽은 모래 쓰러뫼진 땅을 말하며 물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날마다 물을 대야 한다. 아래 끝 쪽으로 모대펄, 오방죽, 뚝안방죽[거그메 지역임]이 있고 뒷벌로는 소펄, 방월방죽, 피방죽, 아이방죽, 돌꼬지방죽, 쌀뚝이 방죽, 쇄동머리방죽, 학교방죽[이상 구산 3리 지역임], 새우장수개울 등이 있다.

현재 이곳에는 94가구 384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장산(獐山)과 노루메

가좌리 마을에서 구산리 방향으로 이어진 70번 군도를 따라 오다가 한강 이산포 방향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옛날에 7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고 한다. 그때 심학산으로부터 산이 하나 둥실둥실 떠내려 오다가 이곳에 멎었는데 산을 자세히 보니 그 모양이 노루꼬리와 같았다. 이런 연고로 산과 마을을 노루메 또는 장산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즉, 장산은 산의 모습이 노루 같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 하며, 또 달리 예전에 이 산에 노루가 많이 살았다는데서 유래한 명칭이라 하기도 한다.

⊙ 새말

노루메[장산]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마을이 처음 새로이 생겼다

는 데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새말이 생긴 것은 52~53년 전이라 한다.

●남원양씨 정착기

이 마을에 많이 사는 남원 양씨의 종문은 본래 김포에 살고 있었는데 300년 전, 떠꺼머리총각 하나가 김포에서 바라다보는 이곳의 불빛이 단지 세개 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불빛이 아름답고 황홀하여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 것이었다. 총각은 만조 때 한강을 헤엄쳐 뭍에 오르자 목이 말랐고 우물에 가서 물을 먹으려 하니 마침 물 긷고 있던 처녀가 물을 주었다. 물 한 그릇이 인연이 되어 그 처녀와 결혼을 하였고 아주 이곳에 눌러 살았다고 한다.

⊙새우장수개울

구산리 구산에서 한강제방 방향의 장월평천 주위에 있는 개울의 이름으로 제방막기 전에 있었던 천연개울 이름이다. 새우장수 개울은 이곳에 새우가 많아 일하다 출출해지면 새우를 잡아 씻어서 끓여 먹고 다시 일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다랑게논

노루메 마을에서 가좌리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 도랑에 두렁치기 물고기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수미논

수미논은 다랑게논 밑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다랑께 논의 두랑치기 물고기가 구멍을 뚫어 이 논으로 물이 스며든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보자 : 김대성(67)

3) 구산 3리(九山 3里)

구산 3리는 앞에서 소개한 구산 2리에서 파주군 산남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의 명칭이다.

이곳도 다른 송포면 지역과 비슷하게 논농사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강 제방 및 주변의 넓은 벌판 가운데에 촌락들이 형성되어 있다. 구산 3리의 자연촌락 명칭은 장월 마을인데 구산 3리도 2리와 같이 한강제방 이후에 새로이 주민들이 많이 이주하였는데 70년대 농지개량조합의 경지 정리로 본격적인 논농사가 가능하여졌다고 한다.

장월에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것은 제방을 막기 전부터지만 마을이라 할 것 까지도 없었다고 한다. 마을 일대가 모두 갈당밭이었는데 갈당밭 사이에 움집 몇 채가 점점이 흩어져 있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멀리 심학산에서 식수를 길어 오기도 하고 논물을 그냥 떠먹기도 하면서 이들은 갈당밭에 가득한 쓸바귀, 냉이, 나무제기, 고들기 등을 캐먹기도 하고, 달밭을 일구어 조, 밀, 수수, 콩 따위 잡곡을 심기도 했다 한다. 일부에서는 밭벼도 심었는데 품종 좋은 밀다리벼[일명 自光]는 가뭄도 잘 견뎌내고 비가 와서 자라기만 하면 벼도 많이 났다고 한다.

한강 제방공사에는 송포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김포 사람들과 형편이 어려운 각처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일부가 그대로 이 마을에 정착하고 다른 사람들은 들락날락하면서 마을에 주민이 점점 불어났다고 한다.

장월에는 되레지 방죽, 기노방죽, 학교방죽, 쇄동머리방죽, 쌀뚝이방죽, 돌꼬지 방죽, 방월방죽, 아이방죽, 피방죽, 소펄 등의 제방, 논 이름이 있는데 그 정확한 위치와 유래는 알 수 없다.

현재 이 마을에는 67가구 273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되레지방죽 · 기노방죽

이 지명의 유래는 각각 방죽의 주인이 되레지사람, 또 일본인 기노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피방죽

장월마을에서 새우장수개울 부근에 있는 예전 논방죽의 이름으로 6.25나던 해를 전후로 내리 3년 동안 가뭄이 들자 피방죽 뿐만 아니라 이 일대가 모두 잡곡밭 · 피밭이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피는 기근을 면하게 해주기도 했지만 의용군에 끌려가기 싫어서 숨어다니던 사람들의 훌륭한 은닉처가 되었다고 한다.

4) 구산 4리(九山 4里)

구산 4리는 앞에서 소개한 구산 1리 마을과 구산 3리 중간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자연촌락 명칭은 중촌, 가운뎃 마을이다.

구산 4리는 장월평천을 마을 중간에 두고 서북쪽으로는 파주군 산남리와 경계하고 있다. 이 마을은 다른 구산리의 여러 행정리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논농사를 위주로 생활하고 있다. 마을의 촌락들은 대부분 큰 벌판이나 작은 야산들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구산 4리는 4년전 구산 1리로 부터 분립하였다. 중촌(中村)만 갖고서는 주민수가 부족하여 행정 마을로부터 다방굴과 수용소를 떼어 관할하게 되었다.

구산 4리에는 구산(龜山) 마을과 그름물 마을이 있으며, 송구봉 선생이 서원을 세워 후학을 기른 곳도 이곳이라 한다.

구산 1리와 4리를 둘러앉은 논들을 소개하면 종논, 공수논, 쉰낭짜리, 황새논, 가마논, 지리논, 앞논, 개울논, 솔체엉. 버논, 떰논, 석이논, 가새논, 만분이 구비논, 무지개논, 동이논, 강논 등이 뭍들에 있다. 이 논들에 물을 주기 위해 가리빠리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에 모대펄, 오방죽, 뚝안방죽도 있다.

1989년 통계로 49가구 187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벌논

벌논은 구산 3리에서 가좌리 방향으로 이어진 70번 군도 주변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이 벌판 가운데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떰논

벌논 서편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이 땅이 예전 국유지였을 때 경작하고 싶은 맘이 있는 사람은 흙무더기로 네 귀퉁이를 쌓아올려 자기 영역임을 표시했다 한다. 떰논은 흙을 떠서 쌓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반분이[반푼이]

떰논이 동편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반푼이는 예전부터 밤동산이라는 잡초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다.

● 동이논

노루메[장산]마을에서 가좌리 방향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60년 전 흉년이 극심하자 팥죽 한 동이와 애써 개간한 4,000평의 논을 바꾸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가리빠리동

파주군 교하면 수노루와 탁굴마을에서 내려오는 개울을 막은 동의 이름이다.

● 모대펄

구산에서 한강제방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모대가 많이 나던 척박한 땅을 개간한 것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모대는 올망대기와 비슷한 식물이라 한다.

● 오방죽

중촌마을에서 70번 군도로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약 60년 전 불모지를 5형제가 개간하여 만든데서 유래했다 한다.

● 뚝안방죽

오방죽에서 동쪽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에 노루메마을에서 궁말 동산를 잇는 뚝이 있었다고 한다. 길이가 2㎞, 높이가 5m, 폭이 아래는 6m 위는 2m로 소규모 제방 구실을 했다. 뚝안방죽은 한강 제방을 쌓기 전에 방죽 가운데 동네에서 가까운 쪽의 쓸만한 땅을 골라 뚝을 쌓고 물이 찌는 것을 방지했다고 하여 유래한 명칭이다.

● 오방죽 · 뚝안방죽

구산 4리 마을에서 파주군 산남리 방향에 있는 방죽의 이름으로 장월평천을 막는 방죽의 이름이다.

⊙ 장월(獐越)

장월은 구산 3리의 가장 큰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가좌리에서 볼때 노루메마을 넘어에 있다 하여 장월이라 한다.

또, 달리 구산 2리의 장산 밑으로는 시내가 흘렀는데 그 내를 이 마을 사람들은 '샛강'이라 불렀다. 장산에 노루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때때로 산으로 노루를 잡으러 갔었다. 그러나 노루는 사람들이 달려들면 산밑을 흐르는 샛강을 뛰어 넘어 건너편의 벌판 쪽으로 달아나곤 하였다. 그래서 이곳은 노루들이 샛강을 뛰어 넘어 달아나는 곳이라 하여 '노루 장(獐)'자 '넘을 월(越)'자를 써서 장월이라 불렀다고 하기도 한다.

⊙ 학교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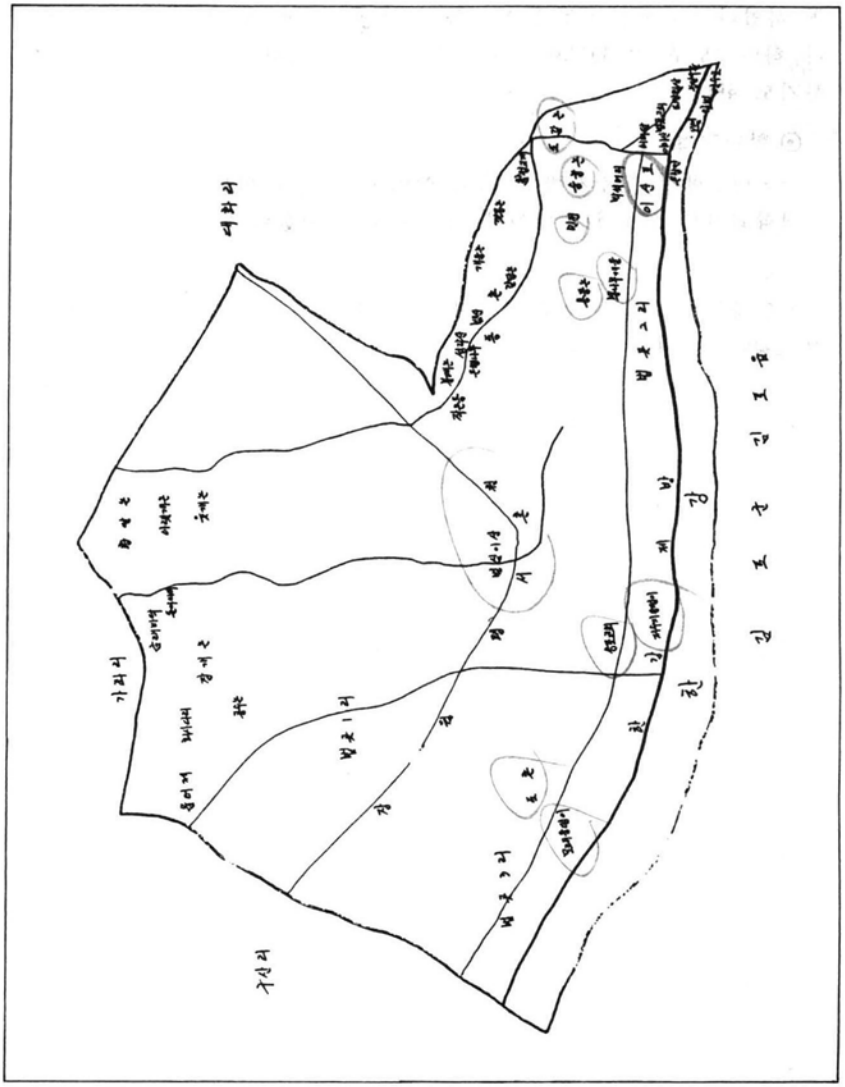
중촌마을에서 한강제방 쪽으로 이어진 지역의 이름으로 예전 성균관대학교에서 소유했던 땅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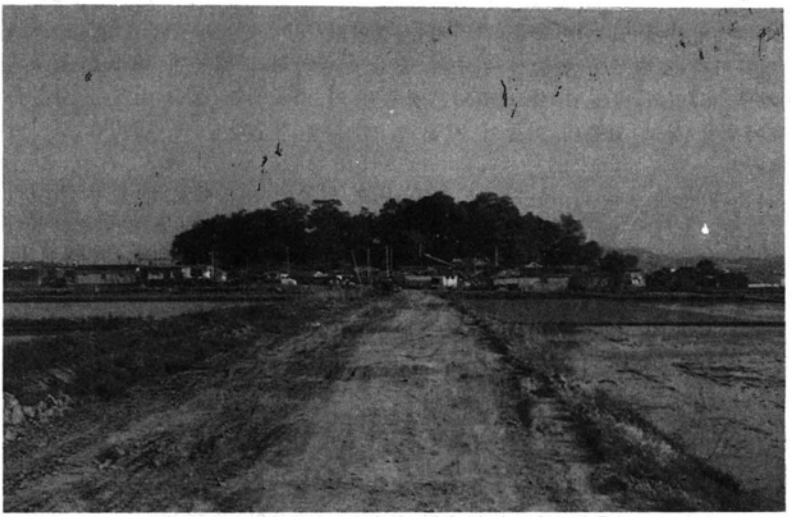
● 소펄

장월방죽에서 구산 2리 방향에 있는 벌판의 이름으로 벌판이 작아서 붙은 명칭이라 한다.

제보자 : 피의용(53)

(5) 법곳리(法串里)





법곳리의 지명이 유래된 법수산과 서촌마을

송포면 법곳리는 송포면 면사무소가 있는 대화리 8리를 기준으로 볼 때 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법곳리의 위치를 살펴보면 법곳리의 동쪽으로는 대화리와 경계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군과, 남쪽으로는 대화리 일부지역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읍과, 북쪽으로는 구산리·가좌리와 경계하고 있는 마을이다. 법곳리의 법곳은 예전 한강제방이 축조되기 이전에 한강을 왕래하던 배들이 정박하던 조그마한 포구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법곳리는 송포면의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논 농사 위주의 농업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강제방이 축조되기 이전에는 갯벌, 갈대밭이었으나 한강 제방이 일제식민지시대 때 축조되고 1960 70년대의 농지 정리가 이루어져 옥토로 바뀐 뒤 촌락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 법곳 1리(法串 1里)

법곳 1리는 앞에서 소개한 가좌리 마을에서 볼 때 서남향 방향 한강 제방 부근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법곳 1리의 위치를 살펴보면 장월평천을 가운데 두고 좌우의 큰 벌판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다.

법곳 1리는 대부분 논농사 위주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1989년 통계로 99가구 367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옛부터 이 마을에는 청송 심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처음 이 마을에 거주한 것은 1600년 경이라 한다.[4]

서촌과 동촌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곳에는 서촌의 벅십리 산과 도촌의 뱀산에 얽힌 전설이 있다. 벅십리 산에는 웁나무 열 한 그루가 있고 뱀산에는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다. 서촌 앞에는 웃개논, 아랫개논, 황달논, 장개논, 공수논, 돌다리터, 금래바닥, 움터께가 등 소지명이 있다. 동촌 마을의 앞과 뒤에는 개똥논, 개울논, 갈당논, 정각산, 불때논, 작은동, 도감논, 숭늉논, 민전, 용등궁, 박석머리, 뽕나무개울 등의 소지명논 이름이 있다. 서촌에는 회사다리가 있어 사람들을 건너주었고 동촌에는 호랑이를 빠뜨리는 함정고개가 있었다고 한다.

● 불때논

동촌마을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정확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 갈당논

동촌마을 개울 논에서 법곳 2리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부터 이 논 부근에 갈대들이 많아 붙여진 논이름인데 한강제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부근 논은 모두 갈대로 이루어졌었다고 한다.

● 민전

숭늉논에서 동촌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금래바닥

금래바닥은 가좌리 마을에서 서촌 마을로 들어오는 길가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이 논은 예전부터 금색의 모래가 많아 유난히 눈에 띄었다고 한다. 즉 금색의 모래가 많은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4) 1) 2) 3)과 같음.

● 아랫개논 · 웃개논

가좌리 마을에서 동촌마을로 들어오는 길 주변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개울이 아랫쪽에 있어 아랫개 논이라 하며 윗쪽에 있는 논을 웃개 논이라 하였다고 한다.

⊙ 돌다리터

금래바닥논 옆에 있는 소지명으로 예전에 농지 정리를 하기 전 이곳에 돌다리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작은동

동촌 은행나무에서 장월평천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에 작은 웅덩이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도감논

함정고개 부근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벅십리

벅십리는 서촌의 다른 명칭으로 장월평천 부근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이다.

지금도 서촌 벅십리에는 산이 하나 있어 동네의 중심을 이루는데 이 산의 모습이 두꺼비 같다는 사실과 '벅십리'라는 명칭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으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장월평천(獐越平川)

장월평천은 일산읍 고봉산 서남쪽에서 발원하여 一山鐵道驛 앞을 거쳐 송포면 덕이리 가좌리 앞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漢江의 第1支流로서 延長 10km 流域面積 17.75㎢이다. 그리고 하구에는 이산포나루가 있다. 또 獐越平川으로 合流되는 漢江의 第2支流로 송포면 덕이리 고봉산 서북쪽에서 발원한 탄현천(炭峴川)이 있고 가좌리에서 발원한 연장 2.6km 유역면적 5.25㎢의 加佐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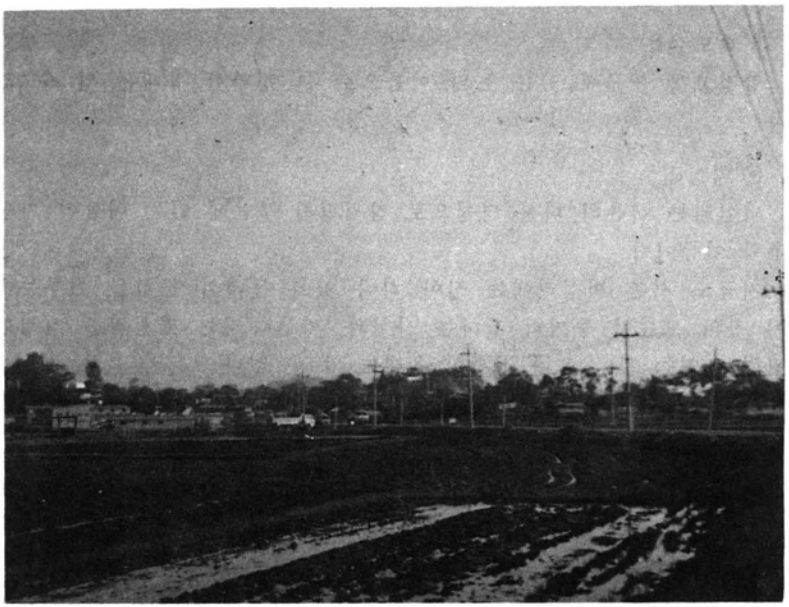
延長 10km中 發源地인 高峯山에서부터 松浦面 接境까지의 일산읍지역 5km는 「三井川」이라고 불렀으며 가물 때는 마르는 河川이었으나 1981年度에 이 地域一帶를 農村振興公社에서 耕地整理를 실시하고 野

溪水路를 설치하여 臨津江 물을 끌어올려 流域을 水利安全地區로 만들었으므로 지금은 이 地區의 臨津江水 용배수로도 이용되고 있다.

●공세천(貢稅川)

공세천은 원당읍 식사리 견달산에서 발원하여 일산읍·풍리·백석리를 거쳐 漢江으로 흘러들어가는 漢江의 第1支流로서 延長은 6.5km, 流域面積은 19.75㎢이다. 가물 때는 마르는 하천 이었으나 지금은 경지정리를 하여 임진강물을 이용한 용배수로로 이용된다.

이상 河川은 直割河川으로 漢江本流 22km 구간과 地方河川 총 연장 106.35km로 되어 있다.



법곳리 이산포 마을

⊙ 동촌

앞에서 소개한 벅십리 서촌마을에서 장월평천 건너 대화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동력(働力)말이라고도 한다. 동촌은 옛부터 마을의 생김이 마치 절구공 같이 생겨서 풍수지리상 주민들이 부지런하고 잘 산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동력(働力)말이 동혁(東赫)말로 급기야 동촌(東村)으로 와전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의 뿌리가 동쪽을 가리키는 데 있다면 동촌보다 더 동쪽에 사는 대화리 뱀개사람들이 서쪽에 위치한 이곳을 '[동녘말]'이라고 부를 리 없다고 한다.

⊙ 서촌

일제가 동녁말을 동촌으로 바꾸어 놓고서는 원래 한 동네인 벅십리에 대해서 동촌(東村)에 대응되는 '서촌'을 새로이 이름으로 부여했다. 서촌은 동촌에 비해 그 위치가 서쪽에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 벅십리산과 법수산

벅십리산과 법수산은 동·서쪽에 있는 작은 야산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즉 두꺼비[벅십리산]가 뱀에게 쫓겨 달아나다 지금의 자리에 이르러 문득 뒤 돌아보니, 뱀이 개울을 건너지 못해 더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이를 보고 안심한 두꺼비가 이 자리에 안주하였다고 한다.

서촌 주민들은 서촌과 동촌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 두꺼비가 뱀에게 잡혀 먹혀 화가 동네에 미칠 것이라 생각해서 오랫동안 다리를 놓지 않았다고 한다.

⊙ 뱀산

뱀산은 동촌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앞에서 소개한 두꺼비를 쫓다가 개울을 건너지 못해 동촌에 머물러 앉은 산이라고 한다.

1755년의 『고양군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법수산(法首山) : 곧 이산(二山)의 하류, 심학의 상류위치 인데 이 산과의 거리가 2~3리에 불과하고 산의 형세도 약간 닮았다. 하나의 큰 구릉이 기묘한데 앞으로는 넓은 들에 임했고 작은 시내가 가로질

러 흐르는데 물고기와 게가 다소 난다.

● 읍나무

벅십리 산 위에 있는 나무로 모두 112그루가 있는데 오랜 것은 몇 백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 읍나무를 베면 동네가 망한다고 하여 이 마을에서 보호하고 있다.

● 은행나무

동촌 마을에 있는 큰 나무인데 예전에는 배들이 이 나무에 닻을 매고 물건을 매매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군나무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수령이 450년, 높이는 20m 정도이다.

● 황달논

가좌리 마을에서 동촌 마을로 들어오는 큰 길 옆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물이 모자라 모가 누렇게 마른 것을 보고 지어낸 이름이라 한다.

● 장개논

가좌리에서 서촌으로 들어오는 길에서 법곳리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이 논의 이름을 장개논이라 하는 것은 다른 논보다 논자리 위치가 높다 하여 붙여진 것이라 한다.

● 움터께

앞에서 소개한 장개논에서 구산리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에 움집이 있던 터였는지 논에서 구들장이 나왔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개똥논

법곳리 동촌에서 가좌리로 가는 도중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이 논은 예전부터 땅이 걸어 벼가 잘 안되고 힘만 든다고 하여 붙여진 논 이름이라 한다.

● 개울논

개울논은 앞에서 소개한 개똥논에서 서촌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이곳에 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개울을 쓸어뫼고 새로이 만든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숭늉논

개똥논에서 이산포로 가는 도중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에 숭늉한 그릇과 바꾼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회사다리

회사다리는 예전 샛강을 가로질러 '펄'〔도촌·장월〕로 나가는 길에 있었다고 하는데 다리의 이름에 대한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 함정고개

동촌 버스정류장 앞을 부르는 지명으로 옛날 이곳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종종 사람을 해꼬지했다 한다. 호랑이에게 혼난 사람 중에 하나가 길섶에 호랑이를 잡을 함정을 판데서 이 길이 함정고개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달리 삼정(三井)고개라고도 부른다.

제보자 : 김원기(55), 김덕기, 심기호(55)

2) 법곳 2리(法串 2里)

법곳 2리는 앞에서 소개한 법곳 1리에서 한강제방, 대화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법곳 2리는 법곳리의 여러 마을 중에서 가장 남동쪽에 위치하며 이산포(二山浦) 마을 부근에 많은 촌락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도 대부분 논 농사 중심의 농업생활을 하고 있는데 송포면 대화리 방향에서 이어진 307번 도로가 이 마을 이산포까지 이어져 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64가구 257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산(二山)은 이미산과 오염을 말하며 예전에는 두 산 사이로 배가 드나들면서 이미나루터에 닻을 내렸다고 한다. 여기서 마을 명칭인 이미와 이산포가 생겼다고 한다.

법곳교회를 꼭대기에 앉히고 있는 산이 도당밑산이고 도당밑산 아래가 쇠마답이다. 쇠마답에 수용소가 들어선지 40년이 된다고 한다.

이산포에는 경주 김씨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50년 전에 벼 사천석을 추수한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현재 이산포는 자유로 건설로 분주한데 자유로가 건설되면 이곳에는 인터

체인지가 생긴다고 한다. 이같은 변화를 겪으며 주민들은 기대를 거는 한편 전업 등을 걱정하고 있다.

⊙ 이미산(二味山)

이산포 마을 뒷편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의 이름으로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첫째로 이미산은 산의 모습이 이무기와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둘째로 이 산 형상이 용의 머리요, 용의 기상을 타고 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옛날 이곳에는 이무기가 살았는데 용이 못되어 심술이 나서 지금의 이미산과 감바위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한다.

그후 옛날 중국 남경 쌀장사가 좁쌀을 싣고 이곳을 지나가다가 파손된 적이 있으며 예전에는 전라도 배와 인천의 배가 이곳을 통과하였고 황해도 해주와 이북[원산, 청진]의 수산물도 이곳을 통하여 한양으로 조공을 바쳤는데 이곳을 지나갈 때면 의례적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 오염

오염은 지금의 한강 한가운데 있던 섬의 이름으로 원래는 30m가 넘는 높은 산으로 이미산 보다도 높았다고 하며 사람들도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강 제방을 건립하면서 이 산의 흙을 조금만 남기고 다 파냈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빠지는 동안만 구경할 수 있다고 한다.

한강에는 모두 다섯개의 섬산이 줄지어 있는데 오염이 맨 마지막 다섯번째 막내동이라고 한다.

⊙ 이미나루터

이미산에 있던 나루터의 이름이다. 이미산이 나루터로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1969년 김신조가 넘어오고 부터라 한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군인이 계속 주둔중이며 숭어, 게, 붕어, 새우 모두 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산(二山)ㅣ

이산(二山)은 곧 행주(杏州) 하류에 있는데 金陵[金浦]과 마주보고 인천(仁川)·부평(富平)·통진(通津)·김포(金浦)를 통제하는 뱃길이다. 강에 임하여 봉우리가 솟아 올랐는데 바위의 형세가 기괴하고 푸른 절벽이 쭈삣쭈삣 하며 그 아래로 반석이 뻗어내려 물이 들어오면 잠기고 물이 물러가면 드러난다. 산에 올라 좌우를 올라보면 목멱산[木覓山 서울 남산의 별칭]과 마니산[摩尼山 江華島의 왕산]이 아련히 보일듯 말듯 한데 절경이 행호(杏湖)와 우열을 다투기에 충분하나 이름난 분의 루각이나 정자는 없다. 옛날에는 한 두 채의 루정이 있었다고도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단지 그 터만 남았다. 대개 이 강은 생산되는 이익이 많고 촌락이 번성하여 옛날부터 유명했으나 지금은 물의 흐름이 어긋나서 큰 배는 정박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배의 이용으로 생계를 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일에 비해 아주 적다. [이석희 편『고양군지』에서]

⊙ 이산포

대화리에서 한강 제방 방향으로 이어진 307번 도로를 따라 가다가 산줄기가 끝나는 부분에 있는 마을 자연촌락 명칭으로 예전에 이미 나루터가 있었기에 이산포라고 했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는 경주 김씨 계룡군파 자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 은창안

이산포마을에서 한강 제방 방향으로 이어진 곳의 자연 소지명인데 이미산의 일부분으로 용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곳은 보기좋은 돌들이 많아 절경을 이룬다고 한다.

⊙ 도당밑산

이산포 마을 법곶 교회 부근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도당밑산은 장구허리처럼 생겼다. 대화 6리에 있는 멱절산과 더불어 완전한 장구의 모양을 만들어 내는데 산세가 그런지 도당밑산에 산소를 쓰면 큰 무당이 난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실예로 이 마을에 '말머리 으뜸네'가 생겼고 말머리 으뜸네 집안은 결국 망했다고 한다.

⊙ 쇠마답

이산포마을 법곶교회에서 대화리 방향에 있는 소지명으로 수용소가 들어서기 전, 이곳은 국유지였고 임자 없는 땅에 풀만 가득 자라 소들을 갖다 맸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수용소

수용소는 6.25사변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북5도민을 위해 국가에서 재목을 지급하여 수용소를 건립하였다. 쇠마답에는 모두 40여 채가 지어졌는데 1채에 한 가구씩 들어 살았다고 한다.

⊙ 뽕나무개울

이산포마을에서 법곶 3리 도촌마을 방향에 있는 개울의 이름으로 지금은 없으나 예전 이곳에 큰 뽕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박석머리

이산포마을 입구에 있는 지명으로 예전부터 이곳에 많은 독과 돌들이 땅에 박혀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용등논

뽕나무 개울 윗편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인수로

이산포 마을에서 대화리 멱절마을 방향에 있는 길의 이름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길이라 한다.

⊙ 앞벌

이산포 마을에서 한강 방향으로 넓게 펼쳐진 벌판의 이름으로 벌판의 위치가 마을 앞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옹달우물

앞에서 소개한 도당밑산에서 대화리 멱절마을 방향에 있는 우물의 이름으로 예전부터 우물이 샘 솟듯이 조금씩 물이 나왔다고 하여 붙

여진 지명이라 한다.

제보자 : 김지환(59), 정옥주(58)

3) 법곳 3리(法串 3里)

법곳 3리는 앞에서 소개한 법곳 2리 마을에서 한강제방, 구산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한강제방 주변에 촌락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도 다른 법곳리의 여러 마을과 마찬가지로 논농사를 주업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산포에서 한강 제방을 따라 줄곧 걸으면 도촌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은 100여년 전부터라고 한다. 초기 정착민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새로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도촌이 마을의 형태를 가지고 잘 살게 된 기초는 한강제방 공사와 동원농장의 경영에 있었다고 한다.

1989년 통계로 법곳 3리에는 86가구 34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도촌(島村)

도촌은 법곳 3리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한강변에 제방이 쌓이기 전에는 작은 섬이었다. 그후로 한강연안에 제방이 쌓이면서 섬이 육지와 연결되었다. 이같은 연고로 이 마을을 도촌(島村), 섬마을이라 부른다.

또 달리 도촌은 한강 제방을 막고 육지가 되었지만 사람도 적고 집도 많지 않아 마치 외딴섬과 같은 풍경을 갖고 있으므로 일본 사람들이 새로이 만든 명칭이라 한다.

⊙ 저수지 웅덩이

송포교회에서 한강제방으로 이어지는 곳의 지명으로 지금은 현존하지 않으나 예전 큰 저수 웅덩이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모래 웅덩이

앞에서 소개한 도촌 마을에서 한강 제방 방향에 있는 지명으로 지금은 없으나 예전 큰 모래 웅덩이 바닥에 모래가 쌓여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제보자 : 김승기(87)